朝鮮日報
夕刊 十八日(水)

「에」國에同情的 和協試案을作成

土耳其、波蘭兩代表의反對로 十七日五國委員會

【巴里通信十七日發】聯盟理事會五國委員會는 十七日午前의二時間餘의 會合에 繼續하야 午後四時부터 約一時半동안 協議한結果 和協試案을 作成하기로되어 若干의 加減修正을하야 全員의一致承認을 어덧스므로 委員長마다리아가西班牙代表가 委員會를 代表하야 이것을 理事會에報告함에 앞서 伊에兩當事國에內示하기로 決定하고 同五時半 散會하엿는데 和協試案內容은 에디오피아의 國際管理를骨子로 한것인데 土耳其及波蘭兩代表의強硬反對로 佛國側의 原案으로부터 伊太利에 有利한項目이 多數削除되고 伊太利에附與될權益의 範圍明示도 避하고 外人顧問任命에 對해서도 에디오피아皇帝의 處理權을 認定하는等 자못 에디오피아側에 同情的인것이 되엇다 그리고 이和協試案의特質은 及協案에 最大限及最小限을 設하야 伸縮性을 附與하고 國際管理와 經濟的干與等에 對해서도 그限界를 明示하지아니하야써 伊太利首相으로부터 全面的拒否를 受할 危險을 巧妙히 解除하야 如何든伊太利側으로부터 가장 具體的意向의 回答을 提出하도록 만든것이다 따라서 마다리아가委員長은 이것을 알로이지伊太利代表及하와리아트 에디오피아代表에게 手交할때에 이에 對한 單純한 受諾 又는 拒絕을 要求할것이 아니오 이것을 如何한程度에서 承認할수잇슬는지 그것과 如何한 點에 잇서서 不滿한가에 對하야 回答을 求하야써 將來의 和協工作前進의 基礎가 되게하기를 要求할려이다

【巴里通信十七日發】十七日의 五國委員會는 小委員會作成의 和協試案檢討를 開始하엿는바 土耳其代表라슈듸·아라스氏는 에디오피아의 利益을 擁護하야 和協試案은 伊太利에 對하야 너무 만흔 利權을 與하야 極히 不公平하다 라고 和協試案修正을 強硬히 主張하얏다

【巴里通信十七日發】五國委員會는 라발(佛)이든(英)마다리아가(西班牙)라슈듸(土耳其)베크(波蘭)의 五委員出席下에 十七日午前十時四十分(日本時間午後六時四十分)부터 一時間餘에 亘하야 小委員會의 作成한 和協試案의 審議를 行하엿는데 라슈듸(土耳其)베크(波蘭)의 兩委員은 和協試案은 伊太利에 對하야 過大의 讓步를 하엿는데 右는 聯盟規約의 精神에 反한다고 強調하야 畢竟意見이 一致되지아니하엿스므로 一旦 散會하고 午後四時부터 再開하고 最後案의 作成을 急히 하기로 決定하엿다

委員會의 開會時間을 대기게 되것이다

南部國境方面에軍十萬待機

【아디스아베바十七日發聯合】에디오피아南部地方의 旅行者의談에依하면 伊領소말릴란드에 接境한 바리州에는 目下 步兵十萬、騎兵二百名、駱駝隊二百名이 集結待機中이다 一方 망가샤將軍은 新軍團組織을 爲하야 十七日 西部의 와레가州에 向하엿다 新軍團을 組織한 後에는 이것을 引率하고 에리트리아國境의 치그레州에 進軍할 計劃이다 그리고 에디오피아國軍에게 雇用된 白耳義將校九名은十七日 아디스아베바에 到着하야 即時 土木、警察等의 技術的方面을 擔當하기로 되엇다

에國皇帝 國防軍八千名에賜餐

【아디스아베바十七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서에一世는 十七日 八千名의 國防軍에게 賜餐하사 祖國防衛의出發을 祝福하시엇다 一同은 皇帝御賜餐의 珍味에 혀를 두드리고 軍歌「아도와의凱旋歌」等을 合唱하고 意氣軒昂하야 出陣하엿다

伊에間開戰說 伊政府正式否定

【羅馬十七日發聯合】伊에開戰說에 關하야 羅馬政府當局은 十七日午後 正式으로 이것을否定하고 如斯한 風說은 全然업는일로서 오히려 底意잇는 宣傳 이라고 言明하엿다

聯盟도事實無根發表

【巴里通信十七日發】聯盟事務當局은 伊에開戰의報에 關하야 現地의 附近地帶에 駐在한 列國機關에 照會를 發하엿던바 모다 如斯한 事實이 업다는 旨의 回答이 왓다 聞知한바에 依하면 이報道는 西班牙政府가 入手한것으로 이것을 五國委員會委員長인 마다리아가西班牙代表가 私私로 各委員에게 傳하야

和協案內容

【쥬네브十七日發聯合】五人委員會는 十七日午後의 會議에서和協試案의 內容을 決定하야 右試案을 基礎로 伊、에兩國政府와 最終的折衝을 遂하기로되엇다 和協試案은 大體 巴里試案을 基礎로 廣範圍의 經濟的政治上의 權益을 伊太利政府에附與한것이라고 確聞되다 또 英佛兩國政府는 에디오피아國에 隣接한 自國領植民地의 一部를 에디오피아에 割讓하고 그代償으로 에디오피아國의 領土의 一部를 伊太利政府에 讓渡한다는條約을 最後의 解決案으로하야 伊에兩國代表의 說得에 進出하엿다고 解釋된다 勿論英佛兩國의 植民地割讓을 和協試案의一部에 너흘 與否는 아직決定되지아니하엿스므로 伊太利代表가 和協試案을 全的으로 受諾할方針이라고 解釋된다 따라서 伊太利政府의 回答이 업는限和協試案의 最終的 內容에 對해서는 決定할수업슬것이다 現在 傳하는바 內容은 如左하다

▲和協試案前文

理事會는 에디오피아政府가 內政改革에 對하야 慇懃히 國際聯盟의 協力을 要望하고 또聯盟의 決定을 實踐하겟다는 旨를 公約한 事實을 想起하고 또 에디오피아政府는 聯盟加入에際하야 公約한바를 아직 實現하게되지안햇다는 伊太利政府의 不平을 想起하고 伊에兩國에 對하야 英佛兩國이 去六月에 提言한바에 基하야 紛爭을 解決할것을 勸告한다

▲內容

一、理事會는 에디오피아政府의 要請에 基하야 에디오피아國의 行政各部門에 亘하야 顧問을 推薦하기로함 但顧問의 任命에 對해서는 에디오피아皇帝가 最終的으로 裁斷을 내릴 權限을 留保한다 (和協試案에 잇서서는 理事會의 推薦할 顧問의 國籍에 對하야 何等明示치안햇다)

一、에디오피아國內의 伊太利人 其他外國人의 生命財產을 保護하고 伊領植民地 國境線의 安全을 確保하기爲하야 에디오피아國의 警察組織을 改善하야 國際警察隊를 任命할것

一、英國政府는 제일라港地附近의 소말릴란드 一部를 佛國政府는 제일라港地에 隣接한 自國領의 一部를 에디오피아政府에 讓渡할것 右讓渡의代償으로 에디오피아政府는 伊太利政府에 에리트리아에 隣接한 다나킬州、소말릴란드에 隣接한 오가덴州를 伊太利政府에 割讓할것

一、에디오피아政府는 國內의 伊太利國民의 平和的發展을 承認하고 移住民에게 適當한 豊饒한 地域의 租借에 應하고 鑛山探堀、鐵道、道路建設等의 權利를 伊太利政府에 提供할것

一、伊에兩國은 새로 平和修交條約을 締結하고 또 英佛伊三國政府間에 協定을 締結하야 에디오피아皇帝의 承認을 經하야 三國의 勢力範圍를 決定할것

戰雲濛濛한 地中海上!

【지브랄타르十七日發聯合】포르탄드의 根據地를 出發한英國艦隊는世界最大의 巡洋戰艦푸드號(四萬二千噸)를 爲始하야 同레나운號(三萬二千噸)七千噸級新銳巡洋艦오리온號、아키레스號、넵춘號 驅逐艦바이스스號等이 純純相銜하야 十七日 지브랄타르軍港에 到着하야 森嚴한 光景을 現出하고잇다 他의 諸艦도 近近 本國根據地를 出發하야 지브랄타르에 向할터로 戰雲은 벌서 地中海를 덥흐려는 緊張을 示하고잇다

英伊關係圍繞코 多島海大緊張

英國巨艦續續集結

【電通아텐스十七日發】南스포라드의 諸島에서 온 報道에 依하면 六隻의 伊太利驅逐艦은 다카니아에 投錨하고 軍隊를 上陸시킨後 軍隊宿舍로 民家約百戶를 買收하고 新砲臺도 構築中이오 海中에는 數設水雷를 첫다고한다 그리고 伊太利驅逐艦六隻은 메르、카리모노스、코스의 諸島를 巡航中이라고 傳하야 伊太利와 英國의 關係를 圍繞코 多島海는 微妙한 空氣에 싸여잇다

伊軍用艦四隻出帆

【電通제노아十六日發】伊太利軍用船四隻은 이리엣라、코크세리아兩師團에屬한將校五十名 下士及兵四千三百名 軍用驢馬其他多數의軍需品을 滿載하고 十六日夜半제노아出帆東阿의 植民地에 向하엿다

팟시스트師團 키號로東阿에

【電通나폴리十七日發】伊太利軍用船 키야카號는 팟시스트師團의 將校百五十二名及 下士、習通兵三千二百七十二名、軍需品을 滿載하고 十七日 나폴리港을 出帆하야 東阿植民地로 向하엿다

英東洋警備軍艦 續續新嘉坡에入港

【電通新嘉坡十七日發】東洋方面警備의 任에 當하는 英國艦隊는 續續 新嘉坡에 入港하고잇는데 이미 入港한 軍艦은 海軍根據地에서 休養을 行하고잇다

和協試案 前途多難

【電通쥬네브十七日發】十七日의 五國委員會에서 決定한 和協試案은 라발佛外相이 他의 四委員에게 呈示한것가튼 感이잇서 英國代表는 자못 滿足의 意를 表하고잇스나 그만큼 伊太利가 受諾하기에는 距離가 먼것이 된셈이다 佛國首相은 總會演說에서 聯盟尊重을 約束한 關係上 어떠케도 할수업게되엇다 따라서 和協의 前途에 對해서는 一層 陰鬱을 感하고잇는 模樣이다 假令 試案의 形式이 巧妙하기때문에 伊太利로부터 全面的으로 拒絕의 回答을 밧지안케되다하더라도 現實로 妥協을 促進할 試案이라고는 認定키難하다고 보는편이 적지안타

伊에兩國代表에 和協試案을內示

【쥬네브十七日發聯合】五人委員會終了後 佛國代表 라발首相은 伊太利代表 알로이지男과 會見하야 和協案을 內示하고 受諾을 要請하엿다 一方 英國代表 이든無任所相은 에디오피아代表 하와리아트公使와 會見하고 和協試案을 內示하엿다

『말타』島在住 英國婦女撤歸

【말타十七日發聯合】말타島在住 英國人婦女子 數百名은 十七日부터 撤退를 開始하엿다、大部分은 在住官吏及 軍人의家族인데 伊에兩國이 드듸어 開戰할 境遇에는 伊太利空軍이 一擧에 말타島根據地를 衝할作戰이라고 解釋되어 島內의 人心은 戰戰兢兢한바잇서서 말타島政廳에서는 海軍要塞部當局과 協力하야 十八、九兩日동안 燈火管制를 實施하고 防空演習을 擧行하기로 決定하엿다

八面鋒

◇ 比律賓獨立政府 初代大統領으로 퀘슨氏、副大統領으로 오스메나氏當選確實。

◇『아기날드』將軍은 落選되엇스나 將軍의 初志만은 貫徹。

◇『지브랄타르』要塞를 막고 스에즈運河만 막으면 地中海는 文字그대로 地中海。

◇ 독안에든쥐라드니 伊太利艦隊가 무슨수로 꼼짝할가。

◇ 伊에戰爭勃發說이 紛紛한이때에、辭府에서는 五人委員會가 和協案을 議論。

◇ 辭府란 元來가 이런양반들모히는 俱樂部라하면 그만、바로지든지 외로지든지 速히 結末이나 내이랑。

伊軍北阿에上陸

東西兩側面에서、에國을威脅 形勢는去益重大化

【電通羅馬十七日發】東阿遠征의 名目下에 數日前 伊太利로부터 出發한 코스실소아及 앗시에라 兩師團의 先發隊將兵三萬은 出發後 俄然 進路를 變更伊太利半島의 바른편 北阿地中海岸 伊領리비아 벤가지兩港에 十七日朝上陸하야 同地의 警備에 依하야 伊太利는 假令 스에즈를 封鎖當하더라도 씨실島 토리폴리 벤가지의 諸地點을 經由하야 埃及上空을 橫斷하야 伊領에리트리아에 非常航空連絡의 自由를 留保할수잇게될터이오 他方 英國側에 잇서서는 그治下에잇는 埃及에 東西兩側面으로부터 兵備充實의 脅威를 밧게되어 形勢는 益益 重大化를 憂慮하게 되엇다

【마라가「西班牙」十七日發聯合】伊太利海軍의 精銳潛水艦隊는十八日 마라가港에 入港할 豫定이다 入港한다음에는 지브랄타르根據地에 碇泊한 英國海軍을 牽制할것으로 보이어 地中海上에서 漸次 全面的對峙를 招來하기로되엿다

比島初代大統領 퀘슨氏當選?

平穩裡選擧終了

【마닐라十七日發聯合】十七日 比律賓全土에 亘하야 行한 比律賓聯邦大統領選擧는 午後六時 平穩히 終了하엿는데 지금까지 判明된 開票의 結果로는 퀘슨上院議長이 壓倒的多數로 當選되엇슬것이라고 보고잇다

◇備考 大統領에 當選된 上院議長「퀘슨」氏는 이번 比島獨立法案成立에 奔走한 이로서『마닐라』와 中央呂宋을 中心으로『타가로』族四百五十萬人의 代表요、副大統領『오스메니아』氏는 前番 獨立法案通過에 盡力한 이로서 中央比島『비자야』族七百五十萬人의 代表者이다 兩人이 모다 比島政界에 잇서서는 絕對的勢力을 가지고 잇슴으로 初代大統領과 副大統領에 當選된것은 當然한 順序일것이다

初代大統領 퀘슨氏

퀘슨氏 壓倒的多數

【마닐라十七日發聯合】比島聯邦大統領選擧는 거의 各州投票場마다 퀘슨氏가 壓倒的 多數를 占하야 드듸어 同氏의 當選은 움즉일수 업게되엇다 各地의開票結果는 判明되지아니햇스나 마닐라市의 各派의 得票는 如左하다

퀘슨氏 二萬五千五百二十七票
아기날드氏 一萬百三十六票
아그리파이氏 四千三百廿二票

話題解說 지브랄타르港

◇ 地中海의 風雲이 急迫하게되자 英國은 九月十六日以來 지브랄타르軍港의 海軍防波堤南口를 閉鎖하고 一切의 船舶通過를 禁止하기로 決定發表하얏다。그러면「지브랄타르」는 어떠한곳이며 軍事上어떠한關係를 가지고잇는가。

◇「지브랄타르」는 西班牙南端의 小半島로서「이베리아」에서 陸地가 떠러저 나왓다가 砂洲에 依하야 다시 連陸된 半島地인데 現在英國領土로 西班牙와사이에 中立地帶를 設하고잇다。面積은 五萬方粁、人口二一、三七二人中에 駐屯軍人이 三、七五九人이나 된다。이半島는 東西로 地中海와 大西洋의境界에 잇서서 마치 門짝이와가튼要衝地에잇고 歐羅巴와 阿弗利加를 連絡하는 바다사이에 군과가티 붓허서 航行、貿易、制海上 極히 重要한 意義를가지고잇다。

◇ 一七〇四年에 英國이 이곳의 天然的良港을 占有한以來 海軍을 두고 海軍軍港上에 莫大한 努力을 더하게되엿는데 地中海東南口의「스에즈」運河와함께 地中海의 死活權을쥐고 잇다고할수잇다。「지브랄타르」에는 軍港以外에 商港(自由港)을두어 歐亞連絡航路의 給炭給水는勿論 果實、穀類、「콜크」等輸出貿易도 盛行된다고한다。

豫備伊兩巨艦 現役復歸

【倫敦十七日發聯合】英國海軍의 地中海出動에 對抗하야 뭇솔리니首相은 十七日 命令을 發하야 數年來 豫備役에 編入되어잇던 戰艦 듀이리오、도리아의 二艦을 現役에 復歸시켯다 兩艦은 모다 一九一三年에 建造한것으로 十二吋砲 十三門을 搭載하고 噸數는 二萬一千五百五十五噸에 達하는巨艦이다

美濃部博士問題 起訴猶豫로決定

【東京電話聯合】美濃部博士의 憲法學說에 關한 告發事件은 既報와 如히 博士가 責任을 痛感하고 十八日午前 貴族院議員을 拜辭의 手段을 取하엿스므로 檢察當局은 刑事訴訟法第二百七十九條의 規定에 依하야 起訴猶豫處分으로하기로 決定하고 諸般手續을 進行하고 目下 美濃部博士의 著書『逐條憲法精義』『憲法撮要』에 關한 部分은 出版法第二十七條의『安寧秩序紊亂의 項』에 該當하나 刑事訴訟法第二百七十九條所定의『事件後의 狀況』에 依하여 公訴를提起치 안켓다는 旨의 明文으로 裏書한 書類를 作製하야 金山檢事長 光行檢事總長을 經하야 小原法相에게 提出하고 法相은 十七日午後의 首腦會議決定에 基하야 午前十時 檢察當局의 稟議대로 決裁를 與하야 決裁書類를 檢事에게 回附하엿스므로 檢事는 正式起訴猶豫處分의 手續을 取하게되어 各方面에서 注目되고잇던 問題도 이에 一段落을 告하엿다

美濃部博士 貴族院議員拜辭

【東京電話】貴族院議員美濃部達吉氏는 十八日午前十時三十分 近衛議長에게 貴族院議員拜辭의 辭表를 提出하엿다 따라서 長貴族院書記官長은 右를 受理하고 辭表에 捺印한 美濃部氏의 印鑑을 照合하고 本人의 것에 相違업는것을 認定하엿스므로 이것을 輕井澤에잇는 近衛議長에게 送達하엿다 同議長은 即日 長書記官長으로 하여금 內閣에向하야 右辭表傳達의 手續을 取하엿다 岡田首相은 右辭表를 上奏御裁可의 手續을 取하야 아마今日中에 如左히 發令될터이다

貴族院議員 美濃部達吉
依願免貴族院議員

渡邊氏政友會脫黨

【東京電話聯合】望月圭介氏가 內閣審議會에 들어가以來 그動向이 注目되고잇던 望月系의 廣島第二區選出政友會所屬代議士渡邊伍氏는 今回 드듸어 脫黨하기로 決定하고 十七日 鈴木總裁에게 脫黨屆를 提出하엿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咸南平南北視察中十九日午後九時五十分京城驛着歸任
▲都逸涉氏(藥專教授)本社參觀次來社
▲裴相河氏(藥專教授) 同上
▲山本滋雄氏(商通副社長) 十八日夜發 鎭南浦農具展과 穀物大會出席次出張 廿五日歸京豫定

特許
伸和式自動籾摺機
伸和籾摺機
伸和重油機關
原動機의馬力 六馬力부터 二百馬力까지
伸和式 重油機關 自動籾摺機 配給所
來二十日부터 五日間鎭南浦農具展覽會場에서 實演展覽에供하오니 希望者는 와보시라
京城府元町一丁目百七十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七番·振替京城一八二四三番

秋期男女學生大募集 (改正學則要二錢)
南大門自動車學校
◆第一實習場(裁判所前) ◆第二實習場(阿峴里) 市外各地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八六七番 (振替二〇五六)

두통과치통에
진노ー

오케ー레코ー드
OKEH
十月新譜
九月廿日發賣

民謠	가리갈실 호이다령	[illegible]
流行歌	꿈길 平壤行進曲	[illegible]
째스송	센트루이스부루스	三又悅
스켓취	結婚戰線 上下	林生員外三人
唱樂調	水宮風流 上下	林芳蔚外數人
伽倻琴並唱	竹杖芒鞋	成錦花
新作판소리	중타령 長長彩鱣	全一道
唱劇	박수원 上下	崔順慶
俗謠	군바타령 언문푸리	金玉葉
하모니가二重奏	양산도 蒙古式結婚舞踊	金波園 宋一九
女聲合唱	고요한南方의노래 主를讚揚하라	梨花그룹

萬人絕讚의十月新譜
流行歌의女王 王壽福孃의노래
流行歌 19213 埠頭의戀歌 王平詞·近藤政二郎曲 / 玉笛아울지마라 片月詞·金冕均曲
流行歌 19217 十三道合唱 片月詞·金冕均曲 金龍煥 / 아리랑四時歌 秋夜月詞·林碧溪曲 오리엔탈合唱隊
流行歌 19219 나루의哀傷曲 金雲灘詞·金冕均曲 全玉 / 漁夫歌 秋夜月詞·金海松曲 尹鍵榮
合唱 19220 그대여나에게로 金雲灘詞 오리엔탈 / 薔薇의꿈 金雲灘詞·李冕相曲 리듬보이스
讚頌歌 19221 더욱사랑 D.W / 전진합시다 聖歌合唱隊
포리도ー루레코ー드

九月十九日부터特別大興行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特別料金‖
★AGM超大作品日本版
萬代의名匠에른스트、루비치監督
名優 모리스、슈봐리에 짜네트、막드낼드主演
메리ー위도
아름다운旋律과 情緒의波濤、夢幻境에젖주리라、興趣한 고다시우슴의饗宴!
★M、G、A、超特作日本版
巨匠…그라렌스、뿌라운監督
萬代最高…크라크、께ー블 人氣스타ー…쪼안、그로포ー드 主演
나의따이나
아름다운메로듸、즐거운고 鬪動하는近代感覺!愛刺한靑春의血潮!甘醉가득한로ー맨스!!耳朶에 사못치는名曲、『나의따이나』의메로듸!
★J、O、太泰全發聲映畫 高津慶子主演
彼女のイット
‖(次週特別大公開)‖ 椿姬、魔의海底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九七〇
團成社

九月十七日부터三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二時 午後三時半 午後八時
料金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上 大人二十錢 下大人十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그ー만ー다우콩구監督 죠ー지·엘·고ー한主演
お化け大統領 全十一卷
松竹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
原作、脚色、監督 島津保次郎 水久保澄子、磯野秋雄主演
嵐の中の處女 全九卷
次週二十日부터封切 마스코트社三五年度大作全發聲日本版
戰慄篇ロストジャングル 全十二卷
구라이드ー비ー티主演 다상以上의맹獸大爭鬪
同時封切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活劇 激浪 全十卷
監督우돌다ー라오 助演로바ー토야구 主演우돌다ー!고노리
仁寺洞 電光三六一
朝鮮劇場

九月十七日부터特別大公開
階下席十錢均一
初秋銀幕에보내는힛三大衆番組
大都超特作現代映畫
하야부사히데드作品
原作脚色—谷牧馬 監督—大江秀夫
暗黑街의人氣者
琴路美津子、宮城浩二 都河마사子、松村夫夫 共演
人生의흘러運命의浮沈 不良者의世界에도 純情의戀!拳銃을품고서潛伏하는 강子相對의大爭斗!
코럼비아超特作映畫日本版
아루바ー드로ー게루ー監督作品
짝크、호ー트、라본 本格主演
조ー지、에부른나 챠ー르스、팔 共演
思響
情에싸인鐵腕熱血의男이怨讐의城을踏破 大激戰中에單身友의救援에決死의冒險
大都映畫超特作時代劇
原作—佐伯幸三、監督—中島寶三
名君道中記
桂章太郎、月宮乙女主演
遠山龍三介、横山文亨 澤田敬三介、春水嚮子 郡健太郎、橘薫久子 共演
櫻井町 本局八五
大正館

九月十八日より臨時興行
秋冷燈深まり映畫シーズン到來!見よ浪花が放つ比の二大オールトーキ併立の組豪華番組!
毎夜三回興行 第一回七時 第二回 第三回
一、銀と耳の新聞(第三二六號)
二、B、K、O特作日本版 ▲カルネラ對ベア 拳鬪十一回戰
三、第一映畫社超特作 オールトーキー
▲まりやのお雪
原作 川口松太郎 脚色 高島達之助 監督 溝口健二 主演 山田五十鈴 夏川大二郎
▲かごや判官
脚色監督 冬島泰三 撮影 伊藤武男
主演 沢良二郎 阪東好太郎 高田浩吉 共他オールスター
大岡政談中問題の殺人事件を先走りの煤屋和三と引込み思案の助十とが協力しての手柄話 キネマ創立十五週年記念映畫
洋畫專門
浪花館

滿野金色이가을! 北邊異鄕流浪길
全南旱災民三百六十二名 今朝京城通過羅津에
全南旱災第一彈 눈물의移民列車

무서운 한재(旱災) 저주(詛呪)로운 피해로 남쪽끝에서 북쪽끝까지 반도의 자오선(子午線)을 종단(縱斷)으로 달리는 눈물의 이민렬차(移民列車)! 전라남도의 이민 구십오세대(世帶) 삼백륙십이명을 태운 림시렬차는, 십칠일오후열시이십사분 목포(木浦)를 출발하야 각역에서 이주민을 실시고 대전(大田)을 거치여 십팔일 오전아홉시사분 경성역에 들리여 아츰식사의 공급을받고 예정대로 무사히 동사십분에 경원선(京元線)으로 청진(淸津)을 향하야 출발하얏다 도중 청원(請願)에서 단신로동자(單身勞働者)백명을합하야 사백륙십이명이 청진에서 배를갈아타고 라진(羅津)축항매립(築港埋立)공사장으로 가는것이다 동렬차에는 전남에서 가장피해가심한 함평(咸平)무안(務安)광주(光州)령광(靈光)의 리재민을 총독부사회과 풍전(豊田)리영규(李泳珪)씨등 수삼인의관리에게 인솔되야떠낫는데 차내에는 아래로는 생후이개월의피떡이유아(乳兒)와 위로는 오십이상의쇠경기(衰境期)에잇는남녀늙은로장정은 구십여명에불과하얏고 그들의안색은 오랜재해와 빠저리는 긔아에 시달리여 암황색(暗黃色)의 소름끼치는바를보여주다 차내 도처에는 압헤달은 량(糧)의 수하물차(手荷物車)가 모자라서 귀떠러진 솟과 가명남은 금침(衾枕)이 허트러진속에 긔운업시 가로세로누은 부녀자와 아동의 얼골에서는 미지의 신이주지에대한 불안이은연히 떠도는듯하얏고 간혹은 전야 고향역두에서 정든고향과 갓가운 친척을 작별하기에 울고 늣기는 남는듯집이 아죽 남엇슴인지 장질의 늣김소리가 군데군데 듯기여 생활선상의 참패자를 스스로 조상하는듯 하얏다 오전 여섯시반경 렬차가 경긔도로 올라서서 평택, 오산(平澤, 烏山)의 넓은평야 옥어진베人속을달리는때는 새벽안개도 거치고 황금색 아츰햇빛이 투광(投光)하는속에 다시금 그들은 농연(濃烟)의 풍흥함을 반기는듯 선망(羨望)의눈동자를 굴리엿다

▽……△

그들의 말을들으면 전남한재중에 가장심한곳은 함평(咸平)군으로 지난소화륙년부터 다섯해동안한재가 계속하얏는데 금년에는 올해사일이흉운은 달수로 녀름마이인 칠월팔십일에 겨우 비가왓슴이여서 정작농사를 지을철에는 비가 아니와서 답(畓)미식부(未植付)가 낫고 붙닷는논으로 이종한 약간의논도 말할수업시 내지구할의 수확감소를 보여긔차를타고 머비조로아색을 보아서는 모르겟스나 일단 경작지에발을드려노코 살피면 베포기라고 무려들하나는듯이업시 모다 입사귀만피여 잇다는것이다 이외에 다욱이 장려하야 파종한대용작(代用作)도 거의전멸 상래에서 대다수를 점령한모밀(蕎麥)이 전부서북지방 찬지방의 종자를갓다 심엇든 관계로 긔후에맛지아니하야 자라기도전에 미리 꼿이피고 열매가 열어서 모밀도 키가 한뼘이채못되는 현상으로성적이극히불량하다한다 총독부사회과로서 요전자에만포선(滿浦線)공사장에 일천삼백명을 파견하얏고 북이래 라진으로 칠백명을 보내스며 이번에 또보내는것인데 이제이후로는 명춘까지에 북조선의 긔후관계로 더데려갈수업서서금년으로는 이번이민이 최종이라한다

▽……△

이들이 라진을가면 과연그들을위하야 라진은얼마나조혼생활조건으로 그들을 반가히마저주느냐하면 라진의 로동임금은장정이 최고일원이고 기타 구십전 팔십전가량이리라는데 만흔 가족은 한사람의 가장(家長)이 벌어서 도저히 살수업게슴으로 당국에서도 이것을 피키위하야 최고가족 오인까지의 사람만을 밧고 그이상가족은 사절하얏다하니 여기기는 이민들은 재민중에도행복자들인세음이다 그들의 말에의하면 현재고향에남아잇는 사람들은 아죽 보리농사지은것은 다소남앗스니까 그것을 가루를만드어 채뿌리와 나무거심이에석거서 죽을쑤어먹는중이나 이제얼마아니가 겨울이되면 그나마 먹을것이업다하며 풍납을따든것다가 끄러기도할수잇스나 그역업스니 도저히살길이업다한다 이외에 금버리갈곳차저가는 자긔들도 장정이라야 일원이라니 저마다 마나되며 풍토와 긔후가다른타향에가서 병이나 나든지하면 엇지하나는것이다 저마다 최고임은 바득수업스니 결국팔구십전으로 로략(老弱)을 더리고 사오식구가 엇지사느냐는것이며 그중에로인과 부녀는 인솔관이나 기다릴맛나기만하면 붓들고 거긔(羅津)가면 살겟느냐는것으로 실로 초목도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할지경의 문자 그대로 눈물의렬차엿다

◇사진은 수송중의 이민

北朝鮮에勞働怒濤
二萬五千餘名 今明年間需要
吉州製紙、古茂山 세멘트 羅津埋立等
大規模勞働移民計畫

금년가을부터 명년봄까지 금년도의 로동이민과 또명년사업부터의 명년도로동이민수송계획을 수립하고저 총독부사회과 죽내(竹內)촉탁은 그간북조선일대의 로동시장을시찰하고 십칠일에귀임하엿는데 그시찰담에 의하면 북조선일대의 금년과명년로동계는 대단히번성하야 다수로동자를 필요하게되엇다한다

즉 길주(吉州)에는 북선제지회사의 공장설치에 총경비륙백만원으로 건설하는중인데 그제일긔공사에는 이백오십만원을가지고 년내에 토공일천명을 사용하고 명년에는다시 대중원을 할터이라한다

고무산(古茂山)에는 소야전(小野田)세멘트회사공장의 건설에 오백만원의 경비로 목하건축중인데 현재일천삼백명을 사용하나 명년에는 다시일천륙백명을 사용하리라한다

또무산(茂山)에는 삼릉(三菱)회사에서 자철광(磁鐵鑛)의시굴을하는데 일천명을 현재에 사용하고잇스나 명년에는 다시이천명을 사용한다하며 무산군삼장(三長)면에는 제분회사건설에도 상당히 로동자를 사용한다고한다 그리고 회령(會寧)에는 륙군모공사에 이백만원의 경비로 목하일천명을 사용하는바 명년오륙월경에는 륙천명의 로동자가 필요하다한다 이외에 아오지(阿吾地)의 탄광확장공사 온성(穩城)、경원(慶源)、경흥(慶興)의 국제철교가설공사에 금년안에 상당히 필요한데 명년에는 다수로동자가필요하다한다 또 라진(羅津)에는 금년에이백만원의 공사에 사천명로동자를사용하고잇스나 사실에잇서서는일천명이나 부족하는상태이다

전긔와가치 북조선일대의 공사장에는 금년안으로도 약사오천명로동자가 필요하며 다시명년에는 약이만명로동자가 필요한데 그지방에서는 도저히 이수요(需要)에응할수업슴으로 총독부사회과에서는 이것을전부금년과 명년에 남조선한재민과농민중에서 선발하야 수송할터이라한다 작년의 로동이민은 대개실패하엿스나 금년에는 성적이매우조와 고주측에서는 자유로 모여드는 로동자보다 총독부의 알선로동자를 환영하는상태로 임금、숙사등의 설비도점차 정돈되야갈뿐아니라 고주측에서도 가족까지 전부이주하는로동자를 환영한다고한다

東邊道共軍相對 國境一帶無電網
森林警備隊八百名을駐置
兩岸에서通話連絡

동변도(東邊道)일대의 반만군과 공산군은 금년여름이래 그세력이 점차확대되야 대안의습격은 물론 조선내에친입하야 경관과 교전하는일도 빈번하야 평북국경일대에는 매일총소리가 안들린는날이 업는상태이라함은 루보한바와갓거니와 경무국 상내(上內)보안과장은 전기동변도와 국경일대의 무장단대책과 경비망의 충실에대한 협의를하고저 일전 안동성(安東省)에 출장하엿든바 십칠일에 귀임하엿는데 이번량당국자의 협의에 의하야 경비책은 다음과가치 결정되엿다

만주국에서는 장백현(長白縣)에삼림채벌의 경비긔관으로 삼림경비대 약팔백명을 십월부터설치하는외에 경비통신긔관으로는 안동성에서 림시경비로 팔만원을 가지고 동변도일대의 각현공서소재지에 무선전신긔를 설치하고 안동현공서(公署)와 통화련락하기로되여 불원 그설비에착[illegible]에 기것이 완성되는대로 경무국에서도 대안무선대와 통신할수잇도록 가튼파장(波長)을 가진 무선대를 국경중요지대 수개소에 설치하야대안과의 통화련락은 물론 조선측에서도 서로 련락하게 설비할터이라한다

동변도에는 현재 공산군이 중심이되야 그조직의힘과 선전의힘을가지고 반만군 토병등을지휘하면서 습격략탈은물론 적화공작을하고잇는데 항상 소부대로 분산하야 행동하는 관계로 군대의 토벌은 효과가 업스며 또 만주국측의 현재의 경비상황은 아주빈약한 상태임으로 결국 경비통신긔관을 충실히하야 만주국경찰상호간은물론 조선측과정보의 민속한 교환과 련락을하야공산군의 습격을 방어하는수밧게업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전긔와가치 근소한 경비로 통신련락을 안전히 할수잇는 경비무선대의 설치를 계획하게된것이라한다 전긔와가치 국경대안의 공산군 토벌책은 재래의 적극적 토벌책으로부터 금후는 경비통신긔관의 충실 교통긔관의 개발등에의하야 방어(防禦)중심의 경비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되것은 공산군의 세력증대와 그무장편대의방식 습격방법등에 대응케하기위한것으로 매우 주목되는바이다

萬三百六十九米
市內下水道工事着手
天然洞、冷洞外二十七個所
今年度內竣工豫定

경성부에서 금년도에 시행할제삼기 하수도(下水道)개수공사는 삼십이개소로서 그총연장 일만삼백륙십구미돌인데 그중에서 지난십오일까지 이미청부에 부친것이 이십구개소 총연장륙천오백팔십미돌이다

아직 청부에 부치지아니한삼개소도 설계가 완료되여 총독부에 인가를신청중이나 대체로 금년안으로 완성할예정이라한다

이미공사를 시행중인곳은 천연동(天然洞)냉동(冷洞)사이와병목정(並木町) 창신동(昌信洞)궁정동(宮井洞)효자동(孝子洞)림정(林町)주교정(舟橋町)등이고 곳 공사에 착수할곳은 앵정정(櫻井町)일정목 본정사정목 사이와 루하동(樓下洞)남대문통일정목창신동의 네곳이오 방금설계중인 곳은 삼판통(三坂通)송월동(松月洞)황금정 오정목이다

부비로써하는 자그마식한 하수도개수공사는 모다십삼개소로서 그중 삼각정(三角町) 다옥정(茶屋町)남미창정(南米倉町)대화정(大和町)삼판통의 다섯곳은 준공이되엿고 방금시행중인 곳은 강기정(岡崎町) 삼판통사이와 봉래정(蓬萊町) 삼정목과 중림동(中林洞) 사이와 서계동(西界洞)으로서 그밧게 다섯개소는 곳 청부에 부칠모양이다

黃金町一帶를 八米突擴張
十六日附로써認可

그동안 경성부에서총독부에 인가를신청중이든 시내황금정도로확장계획은 십륙일부로써 인가가 나왓는데 그상세한내용은 아래와갓거니와 경성부청 아프로부터 황금정칠정목까지 이르든 도로를 약팔미돌가량식 확장하는것으로 금후이도로에 면하야

一、自京城府廳至南大門通一、二丁目 現在幅二一米突八一八二를 三〇米突로하야 南쪽으로 擴張함

二、自南大門通一、二丁目 至金町五丁目 現在의 二一米突八一八二를 三〇米突로하되、北쪽으로 擴張함

三、黃金町七丁目 現在의 二二米突八一八二를 二八米突로하되 北쪽으로 擴張함

四、黃金町道路와 南大門通、永樂町二丁目 若草町 本町 昌慶苑間 電車線 奬忠壇入口의 各交叉點은 適宜剪削함

中央高普生事件 來二十一日判決

십팔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판결을 언도하기로 되엿든 중앙고등보통학교 소동사건의 관계자 박상진(朴尙鎭)리해풍(李海豊)량명에 관한포력행위취체규측위반피고사건은 오는 이십일일에관결하기로되야 연기되엿다

神火는巫女放火
二個月間十二個所에다放火
覆審서八年役求刑

무당이 긔도해주고 돈어더먹기위하야 동리 사람들에게 귀신불이라는 관념을 주고저 두달동안에 열두번이나 남의집에 불을질른 방화사건의 공판이 십칠일 오후경성 복심법원에서열렷다 피고는 충남조치원(鳥致院)사는 리낙순(李樂順)(四五)과 리옥경(李玉京)(二一) 량명으로 그 두녀자는 십여년전부터 서로 친히지내 오든터인데 생활이 곤궁한 나머지에 리옥경이가 무당인것을 기화(奇貨)로 녀기고 리낙순은 그곳 신촌(新村) 부락에 불을 노하서 동리 사람들이 귀신불인것으로 알게하야 기도를하면 그회재를 면할수잇다는 말을하고 긔도료를 바더먹을게획으로 두명이 의론한끄테 리낙순의 장녀로 그당시에 아죽 열네살도 못된 권일례(權一禮)라는 계집아이에게 석냥을 주엇다 그리하야 작년 삼월이십구일 부터 작년 삼월이십구일까지에 그곳 홍순렬(洪淳烈)의집에 네번 박정숙(朴正淑)의 집에 다섯번 정태평(鄭泰平)의 집에 두번 안학봉(安學奉)의 집에한번으로 전후 열두번이나 불을질르게하야 평소 흉흔 반케치 하엿다한다

불은 매양대나제 질렀스므로 동리사람들이 발견하야 대개는 껏는데 끄고서 그집을 수선해노흐면 며칠이 안되여 또 불이 련속적으로 나므로 한동안 그 동리 사람들은 참으로 귀신불인가 하고 의심도하얏스며 전전긍긍하야 밤이나 나지나 마음을 노코 지내지 못하엿다한다 그리다가 작년 삼월 이십구일 나제 전긔 계집아이가박정숙의 집에 불을 부치는것을 마츰 그동리 부인 한명이발견하고 고발한까닭에 드디여 그 범인들은 경찰서에 붓잡힌 것이라한다

불을질른 그게집아이는 경찰서에서 취조하는 경관에게 대하야 그와가티 불을질러서 동리 사람들이 귀신불인줄로알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잇게되면 기도료로 십원을 바더가지고그가운데서 사례로 이원을 준다하기에 불을 작구 부첫노라고 철어는 대답을 하엿다한다 피고 두명은 복심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을 전연부인하엿다 공주(公州)지방법원의 판결대로 향천(香川)검사는 징역 각팔년의 구형을하엿다 판결은 오는이십사일에 언도하기로 되엿다

蔚山赤農事件
青年七名送局

【蔚山】 루보=경남울산적농사건(蔚山赤農事件)은 경주(慶州)서 울산으로넘어온후 지난십칠일에는 박학규(朴學奎)리동계(李東桂)리미동(李美東)박상선(朴相善)외삼명은 치안유지법 위반(治維法違反)으로 일건서류와함께 부산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하며 남어지 륙칠명은 불원간 석방될듯하다고한다

自殺騷動兩題

자살소동두가지=시내 관철동(貫鐵洞)일백십오번지 리인순(李仁順)(二九)=假名=이라는처녀는 십칠일오후열한시경에 한강(漢江)에서 투신하야 물에빠진것을마츰경비선이 발견하고 구출하야 생명을건젓섯는데 그는 시내인사동(寺洞)모병원에서 간호부노릇을하고잇섯는데 최근 그가 외출이심하고 마음이 들뜬것을 그의옵빠가 심히질책을하엿던바 이무지람을 듯고나서 곳그와가티집을나가자살을하려던것이엇다

✕

십칠일 오후네시경에 시외 돈암리(敦岩里) 산(山)사십일번지 의딸호 부근송림가운데에서 어떤남자가 빨가버슨채 죽어잇섯는데 한참동안은 이 의문의시체송장으로인하야 자못소동이되엿스나 소관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 엄밀조사한결과 그는 시내 창신동(昌信洞) 륙백이십사번지 백용화(白容和)(四五)라는 간질병자로서 신병을 비관하고 음독자살한것이 판명되엿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低氣壓은 北海道의 南쪽과日本內地中部의 太平洋岸과 日本海北部에잇서 모다 北東으로 移動하고잇스며 高氣壓은 滿洲北部朝鮮에 퍼저서 오호ᄎ크海는 氣壓이놉다 滿洲朝鮮及九州의 一部는맑고 日本內地中部는비가오기쉽다

昨日最高 二七度五 最低 一九度九
今日正午 二三度

不良菜蔬商 四十名檢擧
淸溪川에菜蔬洗滌타

동대문(東大門)밧게서 시내로들어오는 채소장사들이 시외 왕십리(往十里)부근을 흘러가는청계천(淸溪川)의 더러운물에 채소를 씻처가지고 들어와서 그로인하야 전염병이 시내에 만연됨으로 소관동대문서에서 이를 엄중취체한다함은 루차보도하엿거니와 아직도 완매한 채소장사들이 이냥문법률을 고치지안코 십팔일오전중에도 왕십리부근 더러운물에서 무를씻고잇던 채소장사 사십명을 부근주재소원이 일제히 검거하엿는데 그중에도 특히 루범자로지목되는 리명산(李明山)(四五)등 네명은 단연처벌을하고 그외는 모다엄중설유후에 석방하엿다한다

今夜 本社大講堂에서
世界的拳豪 徐廷權君 "歡迎의밤"

우리의자랑! 서정권(徐廷權)군의 금의환향을 축하하고 아울러 서군이 오늘외영예를 엇기까지의 혁혁한전적(戰績)을 만도스포-츠펜에게 보고하는 모임은 금십팔일오후 일곱시반부터 동양권투회(東洋拳鬪會)발긔로 본사대강당에서 열리게되엿다 오늘밤의 순서중에는 서정권군이 단에서서 감회깁흔 담사가잇슬터이며 중앙보육학교(中央保育學校)의 코러스、바리톤 명가수전영첩(全英疊)씨의독창등 흥미잇는 여흥이 잇슬터인데 오늘밤의 입장료는 [illegible]리비로 실내[illegible]를 밧기로되엿다

開城對鷄林 卓球對抗
廿四日靑年會舘

開城中央 卓球俱樂部對 京城鷄林卓球俱樂部의 第四回定期對抗戰은 來廿四日 午前十一時半부터 鍾路中央 基督敎靑年會舘 運動室에서 靑年會舘 後援下에 열릴터인데 第一回對抗戰에는 [illegible]俱樂部가優勝하엿스며 [illegible] 鷄林軍의雪辱戰으로 兩軍猛練習을거듭하고잇서 當日의白熱戰을 벌서부터 豫期하고잇스며 兩軍陣容과試合方法은 다음과갓다

◀開城中央軍=監督李順佑 主將文錫璜 洪性祐 具滋鳳 崔根恒 黃文顯 閔覺植
◀京城鷄林軍=監督金相赫 主將周鎭洪 洪鍾九 李德煥 洪允基 金振八 趙炳學 朴聖熙 白龍 張昌鎬 朴銘德 李海鍾
◀試合方法은 『點取方法』으로 十一點先取

中等庭球리그
廿四日第二高普서

京城中等學校 庭球聯盟秋期리-그戰은 來廿四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第二高普코-트에서 열릴터인데 京中은棄權을申請하엿다 하나

시에론레코-드 新譜十一月

流行歌 五〇一	그때날생각하리라 / 하소연	安基永
流行歌 六〇一	마지막선물 / 첫사랑	金峀妍 / 彰妍 / 培妍
短歌 七〇一	水宮歌	林방울
歌謠 八〇一	노래가락 / 토기화상	金李申 / 玉山李眞 / 葉紅鳳
쓰센 九〇一	벽창호 / 電報	不出

京 金 城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무배채,벌네전멸약
벌네죽이는약이만흐나 갑이비싸뿐안이라질죽지도안어서일년채소농사가허사되는일이만슴니다단도일원(약갑)하고송료십오전보내시면백평(百坪)채소밧벌네를죽일수잇사오니조금도고배채농사잘지으시라거든 京城鍾路四丁目 日光堂藥品部로로(住所氏名)職業捺印하시고벌네전멸약이라해서주문하시면곳보내드리겟슴니다 振替京城一九一四三

高麗人蔘 開城白菜種子
朝鮮開城府北本町
元祖人蔘商會
電話二一七番 振替京城八七二七番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番)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至午後八時

癩病을全治
生한癩病도足히異할바업는니라 同胞는特効劑創製 治風丸 製造五年來神効를得하야 全快한者數百名의 致賀 同病에呻吟하시는諸氏는 一次服用하십시요
◉五十日分 二十圓
晉州郡奈洞面篤山里 權仁圭 白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頭痛에 ノーシン
배는 布帆을달고 布帆은바람을좇는다
頭痛 가든것도 ノーシン에 맷겨라
三十錢 五十錢 一圓 어느藥店에나 잇슴

健康의十字路
腸胃가다루에
살을올가을의 腸胃病은 一生의健康을 左右한다
腸과胃를强하게 하는捷徑에 헤루푸가잇다
헤루푸 ヘルプ
主効 過食、過飲、食傷 水傷、時候不調 腹冷、冷腹、消化不良等에서 설사 腹痛 吐瀉、腹眼、腹鳴、배속거북 腸가다루 胃가다루
宮內省前侍醫 柏村博士創製
整腸健胃
本舖 津村敬天堂 東京市 [illegible] 振替東京 八六番
定價 三十錢 五十錢 [illegible]
가을은녀름보다危險한泄瀉腹痛의治療에헤루푸의服用이야말노가장快適安全한것이다
全國藥店에서販賣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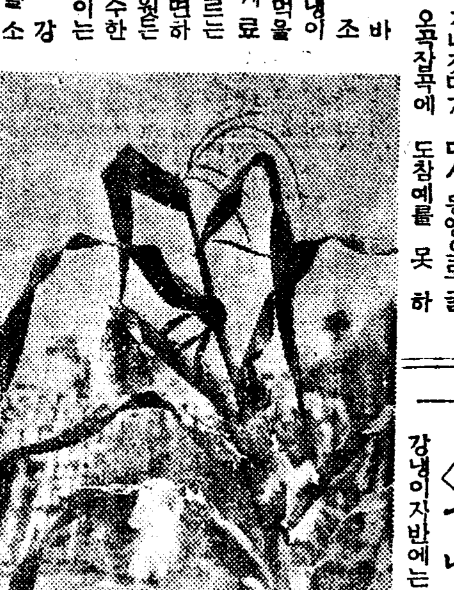
家庭

오곡에 못들고 천대만밧드니 출세해가는옥수수

찜·국·자반—요리를하면별미 제철이니 한번해먹어볼일

옥수수—강냉이

강냉이 즉 옥수수는 맛도 해롭지 안코 사람의 몸에도 대단히 조흔 곡식중의 하나올씨다. 강냉이가 무슨 곡식축에 드느냐고 반대하실찌 몰라도 그속에든 단백질이나 지방가튼 자양분이 밀만 못지 안씁니다. 본래 강냉이는 감자와함께 아메리카 대륙에서 구라파로 건너갓다가 다시 동양으로 굴러온것이니까 오곡잡곡에 도참예를 못하고 아조 푸대접을 바덧습니다. 그뿐더러 조선서는 대개로 강냉이를 찌거나구어서 먹을뿐, 더 달리 맛나게 료리할줄을 전연 모르는 터라 그푸대접을 면하기가 좀처럼 어려웟든 것입니다. 자 우수수한 늣가을바람에 강냉이는 익어갑니다. 희한한 강냉이료리의 메가지를 소개하오리다.



강냉이로 가루를맨들어서 떡을 해먹어도 조코 의를 쑤어먹어도 조흔데 쌀가루를 조금 섞거야 더맛이 납니다. 또강냉이로 전병을 부치어 노터라도 수수전병보담은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런것쯤이야 조선서도 북쪽지방에서는 이미 해먹을줄 아는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희한하다고 새삼스러이 떠들겟습니까?

강냉이를 다리어 가지고 차대신 마시기도하고 강냉이를 짓찌어 기름을 짜가지고 콩기름이나 깨기름과가티 양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강냉이기름도 조선서 기름으로서 향미가 잇서서 조치 안한것이 아니지만은 더

독특한 구나 강냉이차는 구수한맛이보리숭늉보담도 조흔동시에 오좀을잘나오도록하야 리수도의 약도 된답니다. 그러나 차나기름만으로야 아모래도 희한한 료리라고 못할것이 아닙니까? 그러케 미리부터 한소리를해가면서

소개할 것까지는 업지를 안씁니까?

×

강냉이로 희한한 료리를 맨들자면 위선 알이 넘어 여물어서 단단하게 되얏나 안되얏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단단하게 된 것은 가루나 차나 기름을 맨들도록 하고 연한것만을 골라냅니다.

◇강냉이자반

강냉이자반에는 조선식과 서양식의 두가지가 잇습니다. 조선식은 먼저 알을 빼내가지고서 거기다가 진간장을붓고 기름과

설탕을 친뒤 솟이나 남비에 담아서 복가 내는 것이요 서양식은 속겁질이 부른채 밥솟우에나 밥찌는통에 쩌내가지고서 속겁질도 벗기고

물껍도 벗긴뒤 빠다를바르고 소금을(양식먹을때 쓰는 가는소금)뿌리어 뜨더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냉이는 껍질이 억세어 소화불량이 되기쉽습니다. 강냉이자반도 로인이나 애기들에게 만히 먹이시어서는 재미 업습니다.

×

◇강냉이수프

강냉이를 쩌내가지고 알알이 칼로 금을그어 속살만 살짝 뽑어 냅니다. 이와가티 뽑아낸 강냉이의 속살을 한차 스자쯤 해노코는 우유 한홉을 타서 조금 끄립니다. 그런뒤에 빠다를 차ㅅ사시로허나쯤 타고

소금과 호초ㅅ가루를알마치 석습니다 이것이 소위 강냉이수프올씨다.

◇강냉이찜

강냉이 수프를 맨들때와 가티속살을 뽑어 냅니다. 그속살을 큰사시로 두사시쯤 맨들어 노코서 거기다가 닭알두개를 깨트려 너코 간장으로 간을 마치고 설탕을 조금치고 쩌 노흡니다.

새처노코못나는새 타조와화식조 『캉갈루ー』의애기주머니

즘생이 색기를 나어 품에품스고 젓먹이는것쯤은 흔히볼수잇는것입니다 그러나 배ㅅ거죽에 주머니가 달녀 그속에 애기를 너어 길르는 신통한 동물이 잇스니 여러분도 잘아시는『캉갈루ー』라는 즘생입니다.

『캉갈루ー』와가티 배에 주머니가 달려잇는 동물들을 유대류(有袋類)라고 하는데 이유대류가 나는곳은 오ー스트랄리아(大洋洲)대륙입니다 그곳에는 쥐, 맹수여러가지 조류의 유대류가만어서 유대류의세계를 이루어잇다고 해도 과언이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타하고『캉갈루ー』는 무슨필요로 배에 주머니를 달고 잇느냐? 두말 할것업시 색기를 너어길르기 위한 까닭입니다. 동물마다 색기를 배어 나올때까지에는 태아가 성장할만한 시일이 걸립니다 즉 사람은 배ㅅ속에서 열ㅅ달이 지나야 나오고, 호랑이와 사자가튼 즘생은 다섯달, 기타 동물들도 각기 그때로부터 분만될때까지 각기 일정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캉가루ー』의 경우로 말하면 제날자를 다치루지못하고 색기를 나어놋는셈입니다 그러니까 그색기를 죽지안케 외계(外界)의 자극을 밧지안케 잘 기르기 위하야 배거죽에 주머니가 생겨난셈입니다.

『캉갈루ー』의 주머니로말하면 주머니와 뱃속의간격이 엷은막(膜)으로 되여잇서서 기실은뱃속과 별로 다를것이업게되여잇습니다 어머니가 색기를나으면 누구의 눈에도 뜨이지안케 얼른집어서 배주머니속에넛습니다 그러면색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잇슬적과 별로 다를것업시 따뜻하게 지낼수잇스며, 또그속에잇는 젓꼭지를빨고 살이쩌갑니다. 그러케 여러달동안을지나면 귀여운애기는 머리를 주머니박그로 내노케되고 더자라면 아주 주머니박그로나와서 재멋대로 도라다니게됩니다.『캉갈루ー』의 압다리가짧고 뒤다리가 몹시발달되어 굵고긴까닭은 색기를 너어 기르는 주머니로해서 기어다닐수업기때문이아닌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꼬리! 무섭게 발달되엿지만 이꼬리는 그들의 몸에잇서서 팔다리의 역할을하고잇는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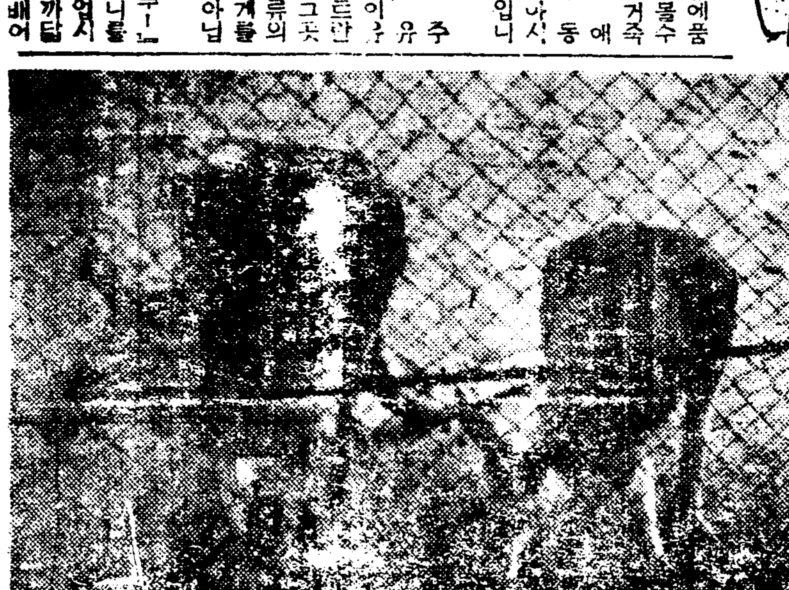
새!하면 의례히 공중을 날느는 동물로알게됩니다. 닭이 땅우에 거려다니기를 만히하지만 급한경우에는 날개를 버리고나르기도합니다 (놉히 나르지는못하지만) 그러나 타조(駝鳥)와화식조(火食鳥)라는새는 조금도날지못하는새입니다 그러나 나는대신 다리가 무척발달되여서 뛰어다니는 재조는 여간이아닙니다 타조는 키가 륙칠척되느니만큼 다른동물에게 쪼기어 다라날경우에는 엇더케빠른지 경마대회에 나가는말도 따르지못한다고합니다.

이 타조와 화식조는 보통새와 다른점은 날개가 거이업다십히되엿고 가슴이 편편한것입니다. 공중으로 나는새는 새가슴이라고해서 가슴뼈가 불룩나오고 거기에 근육이 붓텃는데 이근육은 날개를 놀리는근육이라 매우 발달되어잇습니다 그러나 타조、화식조는날개가 소용업스니까 따라서 가슴의 그러한 뼈와 근육이퇴화되여 펴편하게되것입니다 그래서 평흉류(平胸類)라고 부릅니다. 화식조는 불을먹는대서 화식조가 아니라 턱아래에 달린 빨건고깃덩이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생긴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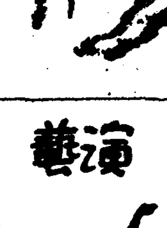
타조는 암컷은갈색、수컷은검은빛 화식조는 암컷수컷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창경원에서이들에게 먹이는것은 빵、닌징、감자、배추가튼것입니다●

몸갑은―『캉가루ー』는 사오백원 타조는 적어도 천원이상 화식조는 오륙백원갑니다. 타조의고향은 아푸리카 화식조는캉갈루ー와한가지『오ー스트랄리아』가고향입니다.



(사진상은『캉갈루ー』、중은화식조、하는타조)

演藝



漢陽映畫社作品 〃江건너마을〃 全九卷

原作 監督 羅雲奎
撮影 孫勇進
主演
車田雨 玄舜英 田澤二 玄芳蘭 金德心 成白葉
特別出演
尹逢春 엑스트라 三百名

梗槪

두멀기슭을 매게된 江건너마을에 풍장을 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양을 건너다보기에는 아름다운듯하나 그날에·그마을을떠나가는 세食口가 잇섯다 昨年初봄에 아버지가 生命갓치 부리든 소를 五十圓에 팔갓기 게됨때에 錦實이라는 딸은 그마을에 드러온 포주한테 五十圓으로自己몸을팔고 郭昔으로 가버렷다 錦實이의옵바 容洙는술장사게집한테 반해서 錦實이가 아버지에게 맛기고간 五十圓을 훔쳐가지고 郭昔로 도망갓다. 잔듸우에서 시냇물가에서 錦實이와 순정을 속삭이든 虎龍이는 自己의戀人이 팔녀간뒤에는 부질업는 설움속에서 一年을보냇다. 一年後. 錦實이는 빙욕갑고도라와다 용洙는 술장사때문에 錦實이엇는것을 다가 다시집으로 도라와다 錦實이와 容洙가 다시집으로 도라오게되자 마을에서는 그것이 이약이거리로 所聞이놉핫다 또는 이마을에名物바보가잇서 도라단니며物件을 훔치고 작란하는것을 라고 욕하엿다 虎龍이는錦實이가도라왓슬때 반기워하엿다 그러나 一年동안 郭昔都會에서 色酒家로잇던 錦實이는 自己도몰느게 이상한 버릇이잇섯다 그것은엇던男子들이나 주는것을 잘 밧고 잘 우서주곤하엿다 이럴때마다 錦實이와虎龍이는 싸웟다. 어느날 밤 容洙는 自己누이동생을 虎龍이한테 一生을 맛겨버릴 決意를 하려고 물방아간에 세사람이 모히도록하엿다 이것을 엿본 마을사람들은 크다란 소문을 이르켯다『물방아간갈보』『갈보는 서방이 열두 넘지』『도적놈』 그 잇혼날 村長을 압헤세우고 온마을사람들이 와서 욕하고 따리고 비웃고도라가다 아버지는 땅을치고 울엇다、딸과옵보도억울한 흥분에 울엇다。

이마을에서는 두벌기음을 始作하노라고 풍장과 술과 노래로 가득찻슬때에 세食口는 논밧도 바리고 山川도하직하고 멀니 떠나간다 가는것을 바라보며 마을사람들이 비웃는것을한참동안보고섯든 虎龍이는 억울하게떠나가는 세食口를 변명하고 自己도 말성마흔 이마을을 떠나서 錦實이를따라서 어듸로 가는지도 몰느는 세食口와함께 머길을 떠나버렷다

(十四日부터 團成社에서 上映中)

十八日(水曜)

◇午後六時 連續兒童劇 世界一週(二) 全二景中第一景 配役 英男…朴鳳姬 그의옵바 張福順 順子(그의동무)…朴玉蘭 明順(그의동무)…高天命 그의 어머니其他合唱隊 出演 金蘭會 指揮及音樂伴奏 金富全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華嚴經 中央佛專敎授 金包光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滿洲事變四週年을當하야
◇同八時 라듸오 드라마放送 劇協會 商船테나시티全四景 出 李瑞求 빌드랙原作…劉致眞 配役 바스잔…河一琅 세果班 갈…朴政道 이도…申日光 데레스…李英恩 主人…李生進 水夫…楊薰
◇同九時一〇分(大) 舞踏音樂 (第一夜)―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交響曲黃金時代로 부터 十九世紀前半 管絃樂 一、메누엣트(驚愕交響曲에서)…하이드作曲 二、獨逸舞曲 二章…모차르트作曲 三、메누엣트…베ー토ー벤作曲 四、발스(아름다운푸르도나우)…슈트라우스作曲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及編曲 菅原明朗

十九日(木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救友 張志浩
◇同二時 家庭時間 京城近郊의 散策地 李鼎燮
◇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은누구슬 二、齊唱꼬부랑두던 三、齊唱거미줄 四、同소낙비三兄弟 五、獨唱비오는저녁 六、齊唱참새 七、同별세기 八、獨唱강아지송아지 九、齊唱에가갓시 忠信學院兒童 피아노 伴奏 金龍鎬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敎學上으로본朝鮮의副業 池中世
◇同七時三〇分 常識講話 朝鮮
◇同八時 國勢調査에對하야 京畿道產業部長 尹泰彬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沈淸歌中 船人따라가는데 鄭貞玉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八時四〇分 歌曲 一、界面初數大葉 二、界面弄 四、界樂 五、編 金花香 洪美蓉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一〇分(大) 舞踏音樂 ―第三夜―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第十九世紀後半으로부터 자ス發生까지―吹奏樂 一、폴카…슈트라우스作曲 二、카드릴…렐함作曲 三、투ー스텝 프…파ー르作曲 舞歌劇『富限娘』에서 四、원·스텝…보ー쓰 포드作曲 五、럭·타임…웰리히作曲 다 체사피ー크灣을 간 은장미 大阪吹奏樂團 指揮及編曲 菅原明朗

二十日(金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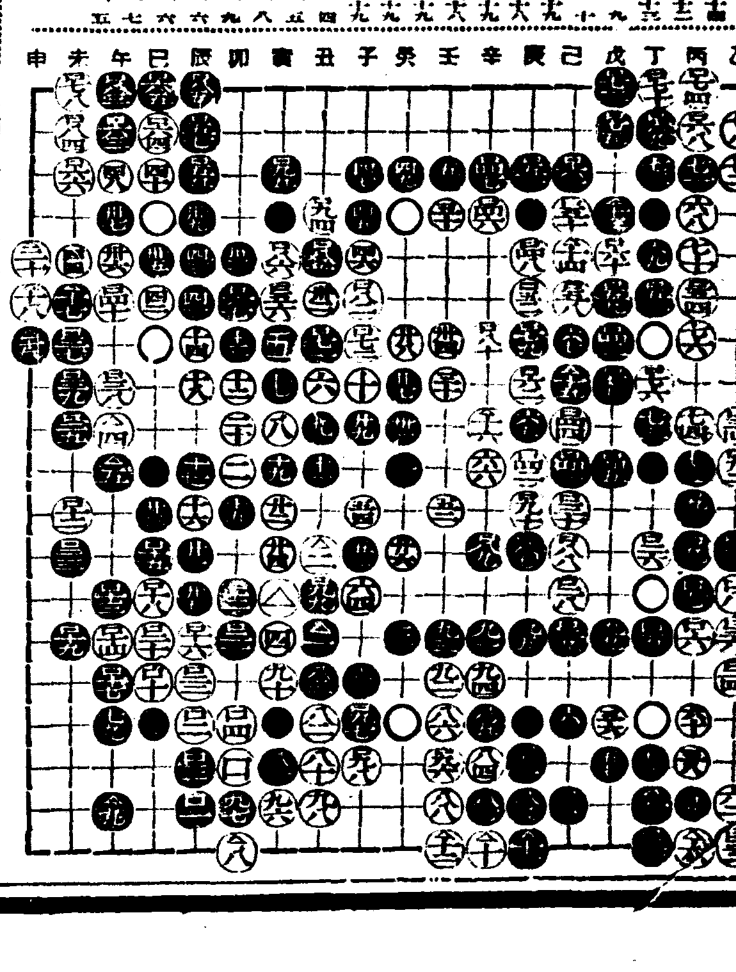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獨唱 一、나올리의밤…렘니코作曲 二、오!太陽…슈ー망作曲 三、노래의 날개…멘델스존作曲 四、流水…첼손作曲 五、나의집…비숍作曲 李信愛 피아노伴奏 金顧洵
◇同二時 家庭講座 經濟上으로 보아家庭改良할點 任永信
◇同六時 四重奏 京城四重奏團
◇同六時二五分 科學講話 朝鮮의鑛物分布에對하야 朴東吉
◇同七時三〇分 常識講話 貿易上으로본朝鮮人生活
◇同八時 藥鼓 傳說의저녁 康秋岡
◇同八時三〇分 申鼎言
◇同九時 尹白南

曆

九月十九日(木) 舊八月建乙酉(大)廿二日 戊戌·木·角·除
●祭祀에宜함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閔仲植
黑先 丁奎春



【●三一】丑의十四 【○三二】丑의十三 【●三三】卯의十二 【○三四】午의九 【●三五】午의十 【○三六】丙의十九 【●三七】丁의十八 【○三八】卯의十九 【●三九】午의十八 【○四〇】辛의十九 【●四一】庚의十九 【○四二】壬의十九 【●四三】戊의四 【○四四】巳의五 【●四五】巳의八 【○四六】辛의九 【●四七】未의六 【○四八】申의六 【●四九】申의七 【○五〇】申의五

◆蔡極文氏評 白이 丙의 十九로 黑을 繫하고 卯의 十九로 黑을 應케하니 雖是三端得利나 可謂不得이니 豈不妙哉 黑이 마일 辰의 十七로 斷하면 黑이 狼狽를 難免이다 白이 午의 九로 進出할도 利亦不少하다 이 巳의 十七로 斷하면 黑이 午의 九로 防塞하여시면 三四戶利益이 아인가 末端收拾도 要在先手이라 克始有終이라야 近於棋道矣리라

世界文藝童話集

어머니 ❶

(丁抹 한스·안더ー슨作)

崔秉和譯

어머니가 조고마한 어린애엽헤안어서 슬픔에잠겨 잇섯읍니다. 어머니는 그어린애가 죽지나안흘가 하고 염려가되엿읍니다. 어린애는 조고마한 얼골이 새파랏케 질녀잇고 눈은감은채 갑분숨을 쉬고잇읍니다. 때때로 한숨이나 쉬는것갓티 숨을길게 쉬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보고는 더한층 슬픈듯이 드려다보고 잇엇읍니다.

그때 똑!똑!하고 방문을두들기는소리가나드니 한사람의초라한 엇더튼 말에게입히는 헌겁조각과가튼 크다란 헌겁조각을둘른 로인이 드러왓읍니다. 추운겨울밤이므로 그러한것이라도 둘느지안히하면 조곰도 견딜수가업엇읍니다. 방밧에서는 모든물건이 모조리 어름과눈으로 덥혀잇고 사람의얼골을 어여낼듯한 모진바람이 불고잇는것입니다.

로인은 부들부들 떨고잇슴니다. 어머니는 맛침 어린애가 잠간동안 조용히잇스므로 그사이에 로인이마실 물을 조고마한 항아리에 너허서 난로우에놋코 데우고잇섯읍니다. 로인은 안저서 어린애의자리를 흔들고잇습니다. 어머니는 그엽의 나즌의자에안저서 어린애의 괴로운숨결을 보고잇섯읍니다.

『엇더케되겟습닛가? 죽지나안켓습닛가?』어머니는 어린애의 작은손을 쥐면서 로인에게 무럿읍니다.

그로인이 『죽엄』그물건이엿습니다. 로인은 그러한일은 업다는듯이 동시에 엇더튼 그러케되리라는듯이 이상스럽게 머리를 끗덕어렷읍니다. 어머니는얼굴을 숙으리엿읍니다. 눈물이뺨을흘너서 떠러젓읍니다.

오날까지 사흘낫 사흘밤을자지도못하고 정신이히미해진 어머니는 그때 팜박 졸고잇엇읍니다. 그것도 오즉 눈깜작할사이 이 눈을감엇다가 또사이데 어느듯눈을떠서 추움에떨면서 이러나는길로 『아!』하고 깜작놀라서 사면을 살펴보앗읍니다. 로인이업서 보이지안힛읍니다. 말할것도업시 로인이데리고 갓것입니다. 방한구석에서는 기동시계가 쉬!쉬!!하고야릇한소리를 내고잇습니다. 그러케 생각하고 잇는동안에 묵운납덩어리 시계추가 딱!하고 마루우에 떠러젓읍니다. 그러드니 시계는 스고마럿읍니다. 어머니는 울며부르지즈면서 아들을찻차갈나고 뛰여나갓읍니다.

밧게는 석검언옷을입은 여편네한사람이 눈가운대 서잇섯습니다. 『죽엄은 지금까지 당신과함께 방안에잇섯지요. 지금금방 그로인은 당신아들을데불고 나왓습니다. 바람보다도 속히사라저 바리엿읍니다. 그로인은 한번 훔처간것은 두번다시 데려다주지 안습니다.』

『대관절 어느쪽으로 갓습닛가. 어느쪽을향하야 갓습닛가. 가르켜주세요. 차저가지고 오겟습니다.』하고 어머니는 말하얏습니다.

『나는 똑똑히 보앗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아는님에게 들려준노래를 여기서 모조리 나에게 들려주시요. 그뒤에 아르켜드리지요. 나는 그노래가 모다 조앗습니다. 요전에도 드른일이잇섯습니다. 나는『밤』입니다. 나는 당신이 노래를 불늘때마다 당신의눈물을보앗습니다』

『그러면은 노래를 불느겟습니다. 그대신 얼른아르켜주십시요. 느저서『죽엄』이 도망가버리면 큰일납니다. 어린애를 못차지면 야단납니다』

『밤』은 잠잣코 안저잇섯습니다. 어머니는 두손을비틀고 몸을흔들면서 노래를불넛습니다. 그러고 훌석훌석 울엇습니다. 울면서울면서 여러가지 노래를 불넛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노래곡조의수효보다도 더만히 흘너떠러젓습니다.『밤』은 나종에 말하얏습니다.

『오른손쪽으로 가시요. 오른편 어두컴컴한 전나무숩속에. 죽엄은당신의아드님을 데불고 저숩속으로 들어갓습니다』

압은곳에

皮膚表面에 아모고장이업고 근육심부와관절이 쑤시고 생기며 쉽니고압픈 神經痛―마지스 관절염의疼痛에는 여러가지專門的수단을 쓰기전에 먼저「사로메치ー루」를발느시면 그럭케심하든고통이 곳개이고 밤에 잠을잘주무시게됩니다.

피곤함을속히회복식힘

職務過勞나運動競技 혹은먼길을걸으신뒤에 몸시 피곤하게된근육에「사로메치ー루」를 발느시면 쉬이는동안 또는 주무시는동안에 모든炎症과鬱血을삭게하고 피곤함을一掃식혀서 원기잇게 몸을회복식혀줍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어느가정에도 한개식준비하시사 무슨돌변사가난때 전문가의손을빌녀쓰지에 응급치료에사용하여주시기바람니다. 즉 두통…현기증…치통…견비증…담결니는데…허리와다리압픈데…펑지낙상…멍이든곳이나세인곳에 감기에걸녀목이압픈때…피부가가려운병에…모기 벼룩의예방에 사용하시면 무슨약보다도 뛰화현효과가잇습니다.

다만 압흔곳에발느면 곳낫는약입니다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치ー루

十五錢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發賣元 田邊元三郞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近郊山岳史話 仁旺山 (2)
仙源舊基인太古亭
湖岩

紫霞門에서 松林새의 큰길로 淸溪를 끼고 한참 내려오노라면 오른편에 白雲莊이란 日本料亭이 잇는데 이것은 본대 東農金嘉鎭의 舊基이엇고 녯날부터 **白雲洞** 이라 稱하야 漢陽朝初에는 梅所李念義의 故居이엇든바 當時名士들이 이白雲洞의幽致를 紫霞洞(松京의 그것)에 比한것이니 이만큼白雲洞이 仁王山기슭에 잇는 名勝中에 하나이엇거니와 이로부터 또다시 一洞谷을 지내서 조금 내려오면 길西쪽에 養老院入口라고 谷樓마루가 서서잇고 그앞시내에는 淸溪橋란 다리가 노엿는데 그다리를 건너서면 곳 有名한 淸風溪로서 丙子胡亂에 江華納城할때 壯烈하게 殉死한 仙源 金尙容의 舊基가 여기잇다 仙源은 본대 林塘鄭惟吉의 外孫으로 南山기슭의 淸洞에서 誕生하엿섯고 北岳기슭 無俗軒에서 그아우님淸陰金尙憲으로 더부러 二間斗屋에同居하야 한분은兵判, 한분은 吏判으로 權外에서 拜謁할門客에게 對하야 단간房에서 接見한것은 오늘날까지 그儉德을 稱하는바어니와 그後仙源이 이 淸風溪에 茅舍를 짓고 太古亭이라이름하고 또그近傍에잇는 自然石에다 **朱子의** 글시를 集字하야 百世淸風이라고 크다랏케 삭엿든바 이집은 仙源으로부터 그宗孫이 世居하야 金宗溪老의代까지 이르럿고 純祖 憲宗哲宗의 歷代上監께서 仙源의 忠烈을 추시는 太古亭이라 여기에 關해서 有名한 逸話가잇스니 최近까지 이집主人이든 金宗溪老의 實祖인 炳操란분의 兒時일이다 하루는 純祖께서 純祖宮에 擧動하섯다가 이太古亭에까지 行幸하섯다 나 炳操ㅣ 御前에 俯伏하야 拜謁함을 보시고 純祖께서 下問하시되

『네가 글을 지여 보앗느냐』

炳操ㅣ 對答하되

『네 몃번지여보앗습니다』

純祖께서그러면

『네가 글을 지여보아라』

炳操ㅣ **俯伏한** 대로 곳應對하야갈오되

聖主臨御地, 小臣俯伏이라고 써서 바치니

純祖께서 御覽하신後 다시炳操에게 命하사 이詩를 읽어보라 하시매

炳操ㅣ곳 목성을 도처서 聖主臨御地에 小臣俯伏이리소이다 하고 읽엇다

純祖께서 炳操에게 對하야 年齡을 물으시고 稱讚이라고 크게 激賞하섯다 이때 隨行해왓든 大臣趙某가 純祖께 알외되『과연 人物이 올시다』하니이는 것절에 뭇나온失言이다 俯伏햇든 炳操ㅣ 純祖께 알외되

『殿下께옵서 위趙高를 데리고 다니시닛까』

純祖께서

『거 무슨 소리냐?』

炳操—갈오되

『趙高가 아니고 무엇십니깐』

이는 대개趙大臣이 無禮함으로써 諷刺함이니 이 歎者失言에對한 報仇이다 炳操ㅣ 兒時에 이와가텃스나 早卒한 때문에 大成하지못한것은 可惜한일이다 이집에는 忠臣孝子節婦의 旌門이 겹겹이 서서잇섯고 지금으로부터 五六十年前만헤도 이洞裡의風氣는 아주藏然自持하야 北村中에서도 特色이 잇섯다하거니와 三井會社의所有가되여 오늘날에 와서는 松楸를 뗏기며 岩石을 때려내고 家屋의 터를 닥글새 自然의風致가 모다 毁損하게되니 文明의作亂도 이에 이르러서는 어지간하다 仙源舊基의

太古亭 은 꼭 一間만 남아잇서 人夫의宿所가 되엇스며 百世淸風의 刻字잇는 岩石도 一面만 남아잇서 겨우 녯날자취를 짐작하게 되엇거니와 養老院뒤에잇는 岩石의美가 아죽 그대로 保存되것은 幸으로 알바게 업다。

學藝
局外者로서 文壇에對한要望 ②
歷史的批判의小說
金宬圭

文壇不振의소리는 인제는 듯기실흔地境이다。얼마나 만흔 作家와批評家가 이소리를 들으지 저왓든가! 그러나 그

原因 는 이럿다 할만한 對策에對한論究의 所得이 別無한것가다。或者는 가로되 優秀한 外國文學을 迅速히 大量的으로 飜譯하야 大衆의 文學水準을 놉히지하며 또 다른者는 朝鮮에잇서서의 文化의未發達과 文學에對한 大衆의 關心이 稀薄함을 歎息한다。勿論 그러치 안흘理는 업다 그러나 이나라의 文學的貧困이 이客觀的現實의貧困의 反映에지내지못한것은 또다시 말할必要도 업슬것이다 그러타고 우리는팔장을 끼고

漠然 히 運數를 기달니는 宿命論者의 무리에 빠질수도업다。不具者의子息을 더一層귀여워하는 父母의 情과도가티 우리는 貧弱함으로서 더一層 朝鮮을 사랑하며그의 成長과 進步를 밟아지안흔가 貧弱한 우리의 文化를 豊潤하게 하는것이 우리『영거ㅣ 제레이숀』의 光榮된 義務가안일것인가 文壇不振의 소리를고만하고 우리는 文壇建設策을考究하자 勿論 諸家의 議論이紛紛하겟지만은 나는 文壇의局外者로서 조고마한 한마듸의意見을 말하야보겟다。

文壇不振의 原因을 漸漸

險惡 하야지는 文藝以外의作用으로 돌녀 보내는者가잇다。아마도 그럴것이다。아이 그것은 우리가想像하는以上의 巨大한作用을 하고잇는지도 몰으겟다。그러나 恒常 우리는 問題의解決을 問題自體의 內部에서 探究치안으면 안이될것이다。우리는 至今 一切의 思考를 忘却하고 自國의生活을하고잇다。그는 社會的領域에잇서서의 生活을하는것이안이라 生物的新陳代謝의生活을 하고잇슬이다。某氏도 말한바어니와 『─의喪失』이 오늘날의朝鮮文學을 性格化식힐것이다。

數爻는 적으나마 每月發表되는

作品 中에 우리는 참다운 朝鮮의 姿態를 苦悶하는 現實朝鮮의『제스추어ㅣ』를 看取할수잇는가? 그러나우리는 다만『이데ㅣ』를喪失한 生物的生活을 描寫한 戱畵와갓흔 作品밧게는對하지못한다。外樣으로만 이른바 先進文明人을 模倣하는무리들—汚物을 모혀드는 蠅群과도갓치 腐敗한 都會地에 몰녀잇는 白痴들의 無意味한 生物的生活을 描寫한것이 참으로 우리가 求하는바의 作品일까?。

나는 다른한편에 眞實을 求하고잇는 少數作家의存在를 否認하는것은안이다。歷史의 正當한前進을

圖謀 하는 이네들의 熱情을 뉘가 참다운것이 안녀 라고 할이오 그러나 그들은 目的에 對한追求가 너모도 强烈함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執拗한現實의 執拗한 追求를 放棄하고 『公式』이란 快速한 飛行機로 一路目的地로의 到達에만 焦燥하고 잇다 荊棘의 途程에 잇서서의 苦悶의重量과 前進退却의 螺線的運動의 過程을 이네들은 너무도 簡單히 省略하야버린다。

數爻 적은傑作中의하나임에 틀림업슬것이다

須井一의『綿』과 林房雄의『靑年』은 最近東京文壇의 (紙數關係로 이두作品의內容의紹介를斷念할수밧게업으나) 이두作品은 갓튼時期에 너어서 論할수업는 各各獨自의『테ㅣ마』와領域을 가젓음에不拘하고 이두作品이가진바 共通的特徵은 歷史的觀點이 그作品의脊椎骨을 일우고잇다는것이다。나는 이것이야말노 朝鮮의進步的作家가 나아갈길을 暗示하고잇는것이안인가 生覺한다。

現實朝鮮을 돌아볼때에 우리는 意外에도 그뿌리깁게백힌封建的殘滓의 强力한힘에 놀랜다 우리의 作家들이 쓰기를 조와하는

有閑 가튼『이데리』의 遊戲와 가튼 創作은 朝鮮의 現實의 表面에 떠도라다니는 거품과도가튼 假象에 지내지못한다。낡은것의 殘滓와 새로히 成長되는것과의 사히에는 激烈한 矛盾, 葛藤, 相克이 잇슬것이며 이것이야말로 歷史를 前進식히는 推進力이 되지안흘가?우리의 進步的 作家가 優秀한 歷史的 觀點에서 이過程을 執拗하게 追求치안코 그 뉘가 이일을 擔當하리오。나는 이제 紙數關係로 忽忽히 結論을 매즐수밧게업다。오늘날 우리의進步的作家가 貧弱한朝鮮의 現實에잇서서

優秀 한作品을 産出식힐 唯一의길은 오죽 歷史的批判의小說—(그것은 單純한 歷史小說이란 말이안이다)—을쓰기에努力할것, 이것뿐일것이다。 —끗—

△…鎔谷의가을…▽

思惟와技術
午前의詩論技術篇 (3)
金起林

아름다운思惟는 그것에 相應한 아름다운 技術을通해서만 認知할수가잇다。 여기서

注 意할것은 賦與된것은 全部 오직賦與된것의 賦與된것以라는일이다。批評이 賦與된것以上의것—外在的인것—을가지고 그詩의評價에 援用하는것은 不當하다。그作者가『레ㅣ닌』이라든지『못솔리니』라고해서 그詩가 더價値가 잇다고해서는아니된다。

한作品이가진價値를 社會的 倫理的 政治的 其他여러가지 角度로부터 바라본것은 조흐나 賦與된作品의 技術과 또그것을 通하야 提示된

思 惟以前의 다른일— 例를 들면 想이 조와다는등하는일을 가지고어떠한 詩의 幼稚를擁護하는것과가튼일은 아니되다 萬若에 그림에 잇서서 線이라든지 色彩라든지를 技術的으로 把握해서 配合해본들 그것은 한자난에지나지안는다。 詩에 잇서서도 마찬가지다。 抽象된技術의 運動은 骸骨의無秩序한動搖에 끄칠것이다。 거기는 技術이 組織되는 統一된 한개의

目 的이 잇서야할것이다 詩에잇서서 思惟는 目的이고 技術이란 方法이라고 생각한다。技術主義는 一九三〇年前後로부터 우리詩壇에 若干의 技術上의 可能性을 開拓 또는 暗示한것은 事實이면서도 항용 이『目的』을 니저버리기쉬웟든것이다

勿論 그技術의 豪華自體를 統一하는 原理는잇섯지만—抽象畵에 잇서서처럼—그것은 裝飾的

價 値에 지나지안엇고 人間精神속에 뿌리를바든 思惟그것은 아니엿다 나는 의미 基礎論에서 詩의 源泉으로서의 人間精神의 問題를 提示하엿거니와 그러한 基礎우헤서 思惟와 技術의 完全한 調和의 世界로서의 새로운 詩的價値를 計推하려는것이다。 오늘의 우리를魅惑하는것은 實로 이러한 綜合의世界다。

◇

그런데 詩에 잇서서 技術의

鍊 磨는 修道의길을通하여서만 發想할수잇는 일이다

卽 機械的으로 배우워질것이아니라 不斷히 그길을 것는사람만이 그것을 參考하므로서 體得할수잇슬뿐이다。

옛날부터도 뛰여난 韻律學者가 반드시 詩人이 될수잇는것은 아니엿다는 事實의 原因은 여기잇다。

詩의 技術의 進展은 詩的精神과 또詩的直觀과 並進하는것이다(續)

凶奴王의陵寢發掘
大陸學界의큰『센세이숀』

【부다ㅣ하發聯合郵信】紀元五世紀頃東은 中國으로부터 西는 歐羅巴에 이르기까지 侵略을恣行하다고 當時各地의 諸領主를 戰慄하게한 勇猛果敢한匈奴王『앗티라』의 墳墓란것이 最近考古學者들의 손으로『헝가리』『바키아』의『더칸스키ㅣ상마르틴』附近에서 發掘되려고한다。 오늘날까지『앗티라』王의墓는 그 所在가 全然不明으로 그發見은 歐羅巴考古學者宿年의 課題가되여잇다。다만傳說에 依하면『앗티라』는紀元四五三年에 嫉妬가 甚한王妃때문에 刺되엿스나 그 遺骸는 家臣들의손으로 金, 銀, 鐵三重의棺에 寶石과 刀劍을너어서 埋葬되엿다。그리고同時에 僞造의墓가 二一所가잇서서後日에 寶物을盜賊하려는 發掘을 防備하기로되여잇다고한다。

그러나 最近『상마르틴』附近에 잇는 小丘를 考古學者의 一團이 發掘中地下 約二十五『야ㅣ드』의 地點에 매우오랜金屬片이 發見되고 또한當時의 匈奴가 사람을 埋葬할때 함께무든 土器와 遺物을供하가爲해서 祭壇으로쓰든 床石가튼것이 發掘되여서 이것이 考證한結果 匈奴의 것이라는것이 證明되엿고 다시 그金屬片은 確實히古代의 棺에 섯든것이라는斷定을 네리게되엿는데 傳說의『앗티라』의 墓는 依然眞實視되게되엿다 目下『상마르틴』附近은 警察의嚴重한 警戒裡에 學者들의 發掘前에 貴重한 歷史的遺物의 散失될가를 防備하고잇스나 發掘의 結果如何는 그것이 東洋史及 西洋史研究上에 重大한影響을 미칠것이라고해서 벌서부터 大陸學界의異常한 注目을 끌고 잇다。

秋燈讀書
全內容의把握
崔鉉培

나의 讀書方法이란 것은 別것이 업습니다。앙잠자리에서 보와 누어서 읽기보다 조선식으로 방석 우에 안자서 읽는 것이 身體에 편안한 느낌을줍니다。이는 아마도 終日토록 學校에서의 洋式生活의 勞苦의 休養이 되는 同時에 또한 心氣의 轉換이 잇기 때문인듯합니다。언제든지 端正히 안자서 읽으며, 누워서 읽는 일이 업습니다。그러고 읽는 冊이 제것이면 그책의 웃머리에 要目을적어서 全體系의 觀察을 解得하기에 힘쓰며, 또 거기에 對한 나自身의 見解를 세우기를힘씀니다。그러므로 書籍의 選擇부터 나의 人生觀, 處世道를中心삼아서 그것에積極的 또는消極的으로 有助한것을 取하기를 힘씀니다。

近來에는 著述上 必要함이 잇서서 別로 책을 읽지 못하엿습니다 다음 책을 推薦합니다。

文學博士 新村出著 言語學槪論(끗)

『길스랜드』 非實在說

【모스크바發聯合郵信】科學者와 探險家들사이에 多年間 論爭을 비저내고잇든 所謂『길스, 란드』問題는 最近『싸베ㅣ트』의 北極洋探險船『사드코』號로서 探險한結果 實在가否定되여서 二世紀間에亘하여온 長論爭도 인제一段落을 지엇다고한다。

『길스, 란드』라고하는것은 十八世紀間에 英人船長『길스』氏가 『스빗스베르겐』東北方航海中北緯八十二度附近에 發見하엿다고報告한以來 探險界의 課題가되여 一八九九年 露西亞人『마카로프』再確認하고 一九二五年『카ㅣ드레ㅣ』라고하는 英人도 實在說에 有利한 證據를 提供하여서 今日에 이른것이다。그러나 今番『사드코』號의 報告에 依하면 同船은 前後三日間에 亘하여서 『길스, 란드』가 잇다고하든 海上을 빈틈업시 차저 보앗스나 맛침내 氷塊밧게는 아모것도보지못하엿스며 飛行機偵察에依해서도 陸地의 그림자조차 發見하지못하엿다고한다。『길스, 란드』存在說은 이로서 完全히粉碎되엿스나 多年間 멧번이나陸地의 存在가 認定되여온 原因은 아마氣象의 關係로서 氷塊를 陸地로 잘못보앗을테잇는것이아닌가한다。

地平線

米國海軍의 巨人偵察機

【와싱톤發聯合郵信】米國海軍長官스완손氏는 『시콜스키ㅣ』氏에게 對해서 大洋水上偵察機 一臺를註造하라고 委囑하엿다。

新偵察機는 目下太平洋沿岸과 『하와이』『밋드웨이』間의 太平洋으로 飛行하고잇는 例의『클리퍼ㅣ』機와 同型의大것으로서 胴長百十呎, 機長八十呎이나되는 것이라고하는데 그 航續距離는 實로四千四萬五千哩이나 되리라고 推算된다。엇지든 同機는 米國이 가지고잇는 最尖端的인 飛行機의 纖細한工作을 必要로하는 機種設計技術의精粹를다한것으로서 것임으로 完成까지는 적어도二年의日字를 要하리라고한다。따라서 請負人의『시콜스키ㅣ』氏는 米國第一流의 飛行機設計專門家로서『클리퍼ㅣ』機도 汎米航空會社의注文으로서 同氏가設計한것이라고한다。『스완손』長官의 委囑을바더서『시콜스키ㅣ』氏는『코네치캇트』州『브릿디뽀ㅣ트』의專有工場에서 곳設計를 始作하엿다。

麥酒만안먹으면 食糧問題解決

【伯林發聯合郵信】카이서ㅣ·윌헬름研究所마수、피샤教授의 研究로 드르면 獨逸의 食糧問題는 『麥酒』로 곳 解決된다고。

同研究所의 調査로보아서 一年間 獨逸全國에서 消費되는麥酒갑은 實로 二億五千萬弗의 多額이라고한다 그래서 피섬ㅣ敎授의 主張은 이러하다 『貴君 麥酒釀造를 食料品으로 돌린다면獨逸의 食糧問題는 곳 解決된다』 또現在 飮酒로 因해서 생기는 疾病의 弊害를 除去키爲해서消費되는 經費도 節約할수잇다』

黑風 【105】
韓龍雲 作
金熊超 畵

해후(邂逅) 17

창순은 향항에잇는 어느 동무가 미국에 류학하다가 도라온것을 듯고 그동무를 맛나도 보고 흉은 그동무가 미국에 잇슬때에 왕한의 소식을 아랏든지 그것도 무러보기위하야 향항에 왓다가 공교히 왕한의눈에 띄어서 피쓰를 사건까지 이러나게되엇든것이엇다

왕한은 창순에게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서 시각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창순을 차저가서 면함을 드리엇다

창순은 왕한의 면함을 밧고서 가슴이 떨리엇다 창순은 연극장에 갓다가 류혈포사건을당한뒤로 아모리 생각하야도 그까닭을 알수가 업섯다 흉은 홍겸이가 자기를 해치라고 한짓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야서 마음이 대단히 불평한중에 아지못하는 남자의 면함을 바덧스므로 홍겸이가 면함을 변하야가지고 자기를 보고저 하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얏다

창순은 명함을 가지고온『뽀이』에게 그사람의 인상을무러서 자세히 드른뒤에 홍겸이가 아닌것을 알고서 드러오기를 청하얏스나 그래도 마음이 노히지 아니하엿다

왕한은 뽀이의 인도로 창순의방에 드러갓다

창순은 이러서서 왕한을맛는다 뽀이는 방문을 고요히 닷고 나갓다

『실례올시다 저는 서왕한입니다』

하는 왕한은 읍揖하면서 공손히 말하얏다

『저는 호창순입니다 안지십시오』

하고 교의를 바로노면서 안끼를 권하는 창순은 배ㅅ가운대의 전등밋헤서 잠ㅅ간본 왕한의 얼굴을 아모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기억하얏다 할지라도 삼년을 지난후에 또아니한 자리에서 돌연히 맛나매 문득 아라볼수는 업는것이엇다 그러나 어느 구석인지 낫이 익은듯 하야서 마치 자기가 백히지 아니한 자기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사진첩에서 뜻밧게 본것 처럼 알듯도 하고 모를듯도 하얏다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겟지오』

하는 왕한의 말에 창순은 반가운듯 하면서도 속가슴은 가벼웁게 떨렷다

『글세요 미안합니다 누구신지 알뜻하면서도 기억이 나지안습니다』

창순은 눈을 감는듯 하고조금 생각하다가 이러케 말하얏다

『삼년전에 배를타고 미국으로 가시라든 일이 잇습지오』하는 왕한은 조금 긴장하얏다

『예!』

하면서 놀나는 창순은 칠분이나 왕한을 알듯하면서 가슴은 더욱 울렁거렷다

『나는 그때에 배ㅅ가운대서 해적을 가리 겨든 사람입니다』

하는 왕한은 침착한듯 하면서도 움직이는 표정이 드러난다

창순은 그제서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야 생명을 내어노코 해적과 싸오든 용감한 그사람, 낫과 밤으로 언제든지 마음가온대 떠나지 안코생각하든 그사람, 죽엄을 맹세하고 영원히 사랑하고저 하든그사람, 그사람인것을 알게되얏다

『아! 그러서요』

하는 창순은 급격한 충동을 바더서 얼골빗치 창백하게 질리다가 다시 붉어지면서 왕한의 가슴에 어푸러질듯 하얏스나 겨우 진정하야서 모든 감정을 흐르는 눈물로 녹여버렷다 왕한이도 어느덧 눈물을 흘린다

일분 이분 삼분 두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흘럿지마는 두사람의 가슴에는 정열의 불이 타고잇섯다 방안의 공긔는 풍설이 날리는 이른봄의 아츰처럼 따뜻한 사랑을 비저내는 소리업는 살풍경이엇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해적에게 해를 입으신줄 아럿더니 나중에야 무사하신줄을 아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뵈올기는 꿈밧기라고 할는지오』

창순은 눈물을 거두고 먼저 입을 열엇다

第一回全朝鮮男女音樂懸賞競演大會

開催日時
九月二十一日公開決選
◇九月十九日 一次豫選
◇九月二十日 二次豫選

本社大講堂에서

審查員
『피아노部』金永煥、朴慶浩
『바이올린部』洪蘭坡、桂貞植
『聲樂部』玄濟明、金文輔

콩쿨樂講集 定價五十錢(送料六錢) 本社庶務部에서頒布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音樂家協會

머리가명하고 발목이빠질것갓치느린하고 졸음이자질때에 元氣를튼튼케하면 身體의機能이强壯케된다

夏 節은 體力의消耗되는때임으로서, 身體의 機能이 衰弱키쉬우며 더위 잘 타고, 머리가 띵하야 根氣가 缺乏되며, 졸음이자저서 하픔이나며, 숨이차고 몸을 動할수업게된다。身體가 허둔허둔하야 발(足)이 닷는곳을 모르게된다。그러한때문에 밤이면 잠이안오고、때로 寢冷으로서 感冒에걸이든지、

腹 部를 차게하야 胃腸의 調和를 낫부게하며 睡眠不足으로써 더욱 元氣가업게되며、태엽이 풀인時計와갓치 느릿한 身體가 된다。태엽풀린 時計는 네지를돌이면 그만이지만、活動이 느저진人間의느릿한身體는 엇더한方法으로써回復식힐것인가? 平生貧血虛弱으로서여름타고여름여위타기쉬운분이든지、病後衰弱의 분은滋養强壯劑로서朝夕으로 조곰식

貴 重한 深山仙酒의養命酒를 愛飮하면、멍하든 머리도 明朗하게되며 元氣가 난다、時計의 태엽을감은거와갓튼 活力에로 回復되며、胃腸의 調和도 活潑하게되며 엇더한飮食物을 들더라도 美味하게되며、남달이 여름여위탈지음에、오히려 튼튼하게 살찌며 더위에도抵抗力을튼튼케하야、劇務에도、登山에도水泳에도疲勞倦怠를이즈며

夜 間에는 푸근히 安眠케되며、말할수업는 健康한 氣分으로서 潑溂하게 活動하게 根氣가 튼튼하야 된다。참으로 조흔것이라고 感嘆하는 분들에게서、듯고서 實驗하면 所聞以上의 眞價을 具備한것이라고 婦人界까지、一層의 好評을博得하고잇다。누구든지 一次라도 試飮하야 그 眞實한體驗을……

苦悶든胃腸衰弱과 不眠症이업서지고튼튼한身體로
八王子市外 川邊太一

나는職業關係上運動不足때문에、漸次로 胃腸이 衰弱하야 食事가減退되고 榮養不足으로서、밤엔不眠症으로써 苦悶밧고 身體는 느릿하야 일에根氣가업고、때때로 眩暈이 이러서 가장괴로워、昨年八月에 一時休職하야 療養에힘써 여러가지 藥과榮養劑를求하야 服用하엿든바、快치못하야苦悶하든中 意外에紙上에서養命酒를 알게되야、半信半疑로서買求하야 服用을繼續하엿든바 漸次食慾이 增進되고、元氣가나서、밤이면安眠케되여스며、眩暈도이저지고、퍽튼튼하여졋다 本年四月부터 本來職場에서 다시일하게되얏다、나는이런體驗으로부터『病을두려워말나養命酒잇다』라고 튼튼한信念을 가지게되엿다。『世上病弱者는悲觀치말고養命酒를試飮하시라滿足할수잇다』라고 自信을가지고 推奬하는바이다 (十年七月廿二日受付寫眞은本人)

小瓶進呈
貴 重한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上等의補酒보다더맛잇는것을實物로紹介하기爲하야 養命酒試驗用小瓶一本을 無料로贈呈中이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오시든지葉書를보내십시오

滋養强壯劑로……
◆疲勞倦怠한사람
◆神經衰弱잇는분
◆胃腸衰弱한분
◆强腦强精의目的
◆不眠숨갑분사람
◆呼吸器弱한사람
◆貧血冷病잇는분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產前產後의婦人
◆病後恢復期 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음
品切될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옵 送料繁節負擔代金引換은送料、實費밧습니다
注意 가짜가잇스니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하시고사시시옵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舘
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伊『에』開戰이면 日本經濟의 影響如何 ②

伊에開戰紛爭, 歐洲政情의 不安等에 刺戟된 日本海運界는 때아닌 活氣를 呈하야 關係會社株는 벌서 株式市場에서 高價를 떠난段階로 騰騰되고잇다 그러나 現狀에對한 認識의 相違는 別問題로 하고 海運界가 이미 好轉하고잇는 事實은 否認할수업다 따라서 紛爭의擴大, 伊에開戰의開戰, 再轉하야 歐洲全局이 渦中에 휩쓸려드는境遇에는 그好影響이 絶大라고 보지안흘수가 업다 開戰의發展과 伊國의 에國에 對한 準備工作으로 이미 海運界에는 三大變化가 생기고 잇다

×

世界船腹은 一個月以內에 한꺼번에 六十七萬五千噸이나 激減하야 五百三十七萬噸으로된 것이, 그한가지오 東洋市場의 好況에 影響되어 이方面에 出動游休하고 또 政府時期를 놋치고잇는 歐洲船約七八十萬噸은 伊에問題로 好機到來라는 듯이 接觸하야 歐洲로 利到하야 現在 남어잇는 것은 二十萬噸에 不過하게되리라이 또 한가지이며 그다음은 以上의 事實에서 歸結된 運賃高의 續騰高이다 그實例를 運價으로 들면 濠洲 歐洲行小麥二十二志 西貢歐洲行米穀二十二志半 大連歐洲行 滿洲大豆 二十二志等 모다 五志內外 昂騰을 契機로 伊에紛爭을 契機로 五志內外 昂騰을 하게되엇는바 그러면 開戰後의 形勢은 엇더할가?

×

이點은 參戰國의多少와 戰局의擴大如何에 달렷다 同盟을 局限하야 伊에開戰을 英國의 스에스運河閉鎖에 끚친다고 假定하자 이境遇에는 昨年以來 未解決로 終了된 日濠海運會商은 和蘭이 英國의 後援을 엇지못하야 自然消滅하고 자바, 최이나가 日本船의 獨占場으로될것은 勿論이려니와 스에스運河의 閉鎖는 歐洲大戰의 經驗에 鑑하야도 歐洲船이 젓라운을 迂廻하야 印度方面에 配航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흠으로 印度方面도 日本船의 手中에 들게될터로 이變化는 大端히 日本船側에 有利하다 一面歐洲方面에對한 日本船의 活躍은 同方面에서 英船 鑑船을 흘리라고 생각되나 그것 만으로는 船腹이 不足될것이므로 日本船이 世界各市場에 出動하고잇는 不定期船이 刻刻 젓라운을 迂廻하야 物資輸送에 當할것이다 다만 이곳에서 一考할것은 米國船舶의 動向인데 同國의中立法은 使用하기가 어렵고 現在 就航船도 貨物船으로 活用餘力이 업다 이처럼 彼此 互相比較를 하여볼때 印度喀東間의 大小航路는 日本船에 獨占을 當하고 他方航路의 擴大化로 圓滑할것이 歐洲航路 다음은 自然히 北米各航路도 隆盛케되리라고 보힌다

×

日本人絹製品, 綿布等에도 進出의好機가 到來할것이다 大概 伊太利는 人絹絲의 輸出로 世界第一이며 綿布에서도 有力한 輸出國이다 이제 그輸出狀況을 본다면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數量千呎 價格百圓)

	一九三三年 數量	價格	一九三四年 數量	價格
綿製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內用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絹製品 人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絹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及크레-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四年度의 綿製品輸出額은 四億五千二百六十四萬一千리라로 總輸出高에 比하면 各一割가량을 占하엿다고한다 (繼續)

來米穀年度로부터 生產、移動과 現在高

囑託員設置、檢査所等利用

全朝鮮的으로調査

農林局에서는 來米穀年度로부터米穀의 生產高, 移動高, 現在高(每月)의調査를 하기로 決定하엿는데 調査方法으로 生產高는 一面에 八名의囑託을 두고 그밧게 囑託指導員을 設置하야 坪收穫을 하기로되고 全朝鮮에서 一萬九千人의 囑託을 새로히任命키로되엿다 그리고 移動高와 每月의 現在高는 穀物檢査所를利用키로되엇다

歐洲風雲險惡과 其波紋

"大戰景氣"를聯想

性急한投機側은買進에注力

取引所街活氣瀰滿

【東京電話聯合】伊에開戰必至 歐洲政局重大化의 報로 벌서부터 大戰景氣를 想起하고 船株 軍需工業은 勿論 엉더리 會社株라도 사서 損은업슬터이니 只今이 第一 살만한때라하야 性急한 投機側은 買進하야 昨今의 東株와東京米取는

沸騰 景氣이다 지난三日의 市勢에 比하야 半月之間에 新東十一圓七十錢 船株八圓三十錢 鐘紡九圓六十錢 日本電工新十一圓八十錢 帝人九圓五十錢 倉敷紡六圓八十錢이라는 括目할만한 昂騰을 보이엇다 其他의 雜株도 모다 買進되어 적지안케 오르고잇다

生絲 와 人絹이 高價인것도 米國의 好景氣때문이아니고紛爭의 中心伊太利가生絲와 人絹에는 日本의 敵으로 戰爭이 이러나면 獨舞臺로되리라는 心算인데 이景氣가 어데까지 繼續 될런지는 歐洲暗雲의 動向에 달렷다如何間 이를에 한바탕 모이보자는뱃장인지 昨今의 取引所는 大買方이 나타나 宛然熱病的이다

工組令은 今年公布

明年度實施

工業組合設定에 關한 十一年度豫算要求는 財務局查定에서 削減되고 이에 伴하야 工業組合의 公布實施도 疑問視되고잇든바 日本內地, 朝鮮產業統制問題의 複雜化를 따라 特히 中小工業에잇서 統制가 急務임에 鑑하야 五圓四分三으로 各各 昂騰하엿다

人絹染色統制 交涉不進捗

朝鮮側態度强硬으로

日本輸出織物染色工業組合聯合會代表와 朝鮮側代表와의 人絹染色輸出統制交涉은 十七日 午後二時부터 朝鮮호텔에서 開始하얏는데

◆聯合會側=福井, 齊藤, 岩田外京都, 神戶, 東京의七代表

◆朝鮮側=朝鮮織物宮林, 小川, 昭和工業, 高橋, 朝鮮紡織木南外三氏

◆總督府側=商工事務官外四係官이 列席하야 먼저聯合會代表로부터 統制內容과 그趣旨를 說明하고 極力 朝鮮의 參加를要求하얏슴에 對하야 朝鮮側에서는 統制趣旨는 매우 조흐나 元來 統制는 輸出을 主眼으로 하고잇는데 朝鮮은 自給自足의 實現을期하야 人絹工業은 勃興의 途에잇다 그리고 朝鮮內染色은 朝鮮織物, 朝鮮紡織, 大昌等모다餘力으로自家製織의 生地를 染色하고잇서 日本內地와如히 純然한 染色業者가아니다 따라 直時 統制에 參加함은 不可能하다라고 述하고 第一次會見을 맛치고 同六時半 散會하얏다 그러고 十八日은 日本內地代表를 京城府內各工場에 案內하고 午後六時부터 朝鮮호텔에서 非公式으로 第二次會見을하야 交涉을 進行할러이다

朝鮮內銅製煉

一層勃興趨勢

日本産銅界는 水曜會(住友、三菱、古川、日鑛、久原田)의統制에 依하야 維持되고잇스나 最近朝鮮內의 製鍊事業勃興을 그統制가 威脅을 맷고잇다한다 即朝鮮興南製鍊所、昭和의鎭南浦製鍊長項의朝鮮製鍊의 各社가 金製鍊의 觸媒로 銅鑛을 使用하고 그産銅高도 相當한量에達하야今年以後 다시 增勢에잇고 朝鮮製鍊와가른것은 銅加工業에 進出할 計畫도 잇다고傳하야 本內地의 斯界에 衝動을 주고잇다한다 傳하야 形勢 去益 險惡하야 伊『에』開戰說까지

磅貨低와 弗貨高

◇……英米爲替의 低落

伊에開戰說로 十七日入電의英米爲替는 四弗九十仙八分三으로 前日의四弗九十四仙四分二에 比하야 磅貨가 低落하고 그反面에 弗貨高를 나타냇다 그러고 이를 따라서 米國爲替도 暴落하엿다

米日爲替 暴落出現

【京城十七日發聯合】十七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八弗九十二仙으로 九仙低 買二十八弗九十五仙으로九仙低

◆東京爲替 (十八日)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一五
	買	二十九弗十六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買	一志二片八分一

◆大阪爲替 (十八日)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十五
	買	二十九弗十六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買	一志二片八分一

上海爲替暴騰

【上海電報十七日商通】못솔리니首相의聲明으로 中國爲替가 急騰하야 歐洲의形勢急迫으로 一般의外貨賣進으로 最近 매우强調를呈하든 上海爲替市場은 十七日 무首相이『開戰을 中止하자고 말하여도 늣지안타』 聲明하엿다는 入報가 잇서 場面은 依然 總賣로 一志六片十六分十三에 寄附하고 對英은午後에 一志七片八分의 一로 急騰하고 一面 對米는 三十八弗十六分十三에서 寄附 三十九弗八分三 對日은 寄附 百三十三圓五十錢에서 百三十

金組理事協議會

十八日로부터 三日間開催

全朝鮮金融組合理事協議會를 十八日午前九時부터 京城竹添町 朝鮮金融組合會 會議室에서 열고 來賓으로는 今井田 政務總監을 비롯하야 總督府 關係各局 課長 富永京畿道知事以下 各關係部長 各道內務部長 理財課長 銀行側으로는 有賀殖銀頭取外 各 銀行重役幹部 府內各金組合長等 約六十名, 全朝鮮各金組理事 員九百名에 約八百名 出席으로 總長의 開會辭가 잇슨다음에 總督代讀 林財務局長의 訓示가 잇서다 懇談하야 講演會組合經營實驗談」가열이엇고 그리고 午後에는 一時로부터 再開된바 協議事項은 다음과갓다

❶……協議事項內容

協議事項 (卄八項)

十八日부터 二十日까지의 開期三日間 協議할事項은 다음과가튼卄八項이다

◆第一部 (一項)

一、農家更生計畫에 對하야 金融組合이 取할方策에 關한件(聯合會)

◆第二部 (十三項)

一、金融組合貸付限度 都市組合五千圓 村坂組合 二千圓까지擴張에對한 要望의件 但保證貸出限度는 從前대로하고 特殊資金의 加增貸付限度를 信用程度 總點數의 五割以內까지擴張할일(全北)

二、金融組合의 擔保貸付限度를 擴張합일(全南)

三、貸付金限度擴張의件 促進要望의件(慶南)

四、貸付金限度擴張에對한 要望의件(慶南)

五、貸付限度擴張促進의件(咸北)

六、農業動産信用法에 準한制令을發布할일(京畿)

七、農業動産信用法及 家畜保險法類似의法令發布로 當局에要望할(忠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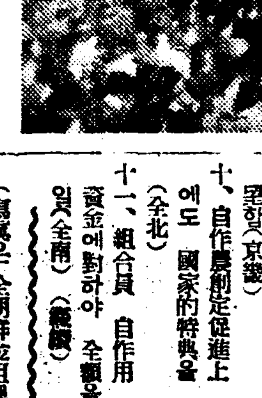
八、農業動産信用法에準한 制令發布促進法에對한要望의件(咸北)

九、金融組合의 自作用土地擔保人低利資金融通에依한 土地所有權의移轉에關한 登錄稅及 不動産取得稅를金融組合의 抵當權設定에關한 登錄稅免除를要望할(京畿)

十、自作農創定促進上 金融組合에도 國家的特典을 與합일(全北)

十一、組合員 自作用 土地購入資金에對하야 全額을 貸付합일(全南)(繼續)

(寫眞은 全朝鮮金組理事會開催의光景)



戰爭市勢化!

沸騰되는買氣

伊『에』開戰을 時期問題로 보고잇는이때 伊太利國境에서 兩軍이 衝突하얏다는 報道가 잇서 聯盟은 찬황하엿스나 虛報인모양이다 그러나 이런소리가 나올만치 開戰이 切迫한것이 事實임으로 今前場은 爲替暴落과 相俟하야 東新가튼것은 今年中最高價인 百五十七圓臺로 奔騰이고 其他 一齊 狂騰이엇는바 朝刊報道에 依하면 聯盟의 和協試案은『에』國을 國際管理下에 두고 伊太利에게 利權의太半을 付與하자는 것이라하며 和戰의 岐路에선 伊首相 뭇솔리니도 左右間 最後決定을 지어야 할 處地에잇서 和戰兩端間態度를 取케될것인데 心中으로는 될수잇스면 戰爭을 回避할 생각이 업지안타하니 果然어떠한 展開가잇슬것인지 世人의 注目을밧고잇다

朝取業績良好

今期增配確實

朝取 今期의實質高는 株의動搖로證券部도 良好이나 米價의波瀾으로 期米部가 特히 增加되어 六月一日부터 九月十六日까지의 實買高는

證券部 六十三萬五千株
期米部 六百七十七萬株

期米部는 前期中의 五百五萬石을 비롯이 三個月半에 株式은前期總出來高 百二十一萬株의 半以上에 達하얏스며 特히 期米部는 前前期의 九十七萬株에, 對하야 約七割張, 期米는 前前期의 八百八十萬石에對하야 七割의 各實買高를 示하얏습으로 從하야 今後 二個月半의 季節關係로보아 兩部共히相當히增加될것인同時에 前期一分減인八分配當을 한同社는 當然 今期增配可能을 豫想케되엇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枚

◆東邦電力五六、六 ◆帝國火藥一六〇 ◆東邦電大新一七三〇 ◆日本郵船七〇〇 ◆窒素新四三〇 ◆電化新三七九〇 ◆日本産業新一〇〇 ◆大阪商船五三〇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株式高에도不拘코 急反落의商狀으로서 米貨債五分半三圓四十錢 六分半三圓低를비롯하야 其他一齊三, 四十錢 反落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三七〇 ◆佛貨四分利 一八六、〇五

期米 八圓臺後 反落

前場漸騰 昨後場 阪地三十圓二十五錢止와共히 二十七圓七十六錢에 場外止 場으 今

今日財界 (十八日)

◆米

仁川期米 先限 三〇九〇
大阪期米 先限 三〇五〇
堂島米 (一石) 三九〇
正米(仁川政府) 一石 [illegible]

◆市中金融

一斤 現在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ゴム 現 [illegible]

東新株畢竟에 五月高價上廻

東新은 畢竟 五月一日의 高價(卽 今年 昨日까지의 最高價)를 上廻하는 新高值로 擧進하야 今前場 東新 百五十七圓, 大阪 百五十六圓九十錢 當地 百五十七圓 五十錢이어 이 新高値를 보고서 波瀾性이 展開되게 對하야 强氣는 日新高 今年中 天井이라고 까지 稱說 은 五月의高價를 이미 上廻하얏스니 정말上市勢는 이로부터 이오 平時의 區域를한 買線論이 나 市場傳說을 가지고 一押이 잇슬것이니 天井이니를 떠들것이 아니라 戰爭市勢임을 確知하여야 할것이다 멀어서 今後에 取할方針은 大市勢를 맛고서 勇往猛進할것이라는 反面에 弱氣로 는 伊에開戰, 歐洲戰雲擴大는 이 程度로서 充分히 買進되엇다할수잇고 올는것도 限度가 잇는것으로 近日의 市勢가 擧出 一氣 奔進만 될것이아니오 伊에開戰實行, 國際聯盟에서의 歐洲政局 動向等에 依하야는 先望投도 나올것이오 설령 伊에가 開戰하드래도 短期間이오 이것이 英佛等에까지 波及지안는限 別로 큰 利를 日本이 바란것이 아니라하야 이 로부터의 高價는 越乎買가 有利라 보는便이 잇섯는데 要는 今後의 歐洲戰爭의有無, 範圍大小에 依하야 決定될 市勢인만큼 速斷을不許이오 波瀾激甚이 豫想되엇다

後場波瀾

後場은 延刻立會인바 東新六圓三十錢 日産五圓三十錢 大新五圓七十錢 朝新八圓五十錢에 一息으로 十錢高或同價로 斉後波瀾商狀이엇다

先限活氣潑潑

途作說擡頭로

本月初에는 渡米荒策을 爭치 못하리라는 常限과 따아서 中限期에 東寄하여왓스나 昨今에 入하야 常中限은 물이허 老六十六錢으로 開盤가리止揚하다 六十三錢에 前前反落하고 五前期七十五錢 三前六十六錢 四前九十五錢에 六十錢低로 前앙反落二

後場反落

後場은 二十七圓九十五錢 六十錢低로 三前六十六錢 四前 止揚하얏스며 二十七圓 寄付하여 기가 미어 끌러 盛高가止揚하엿다 前場 高價보다 도 十七圓七十七錢으로 十三錢이 二錢의 反落이다 입는 一錢이 出되어 一錢에 反落하엿다 立合후 止揚하엇다

趙俊鎬 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二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市場小感

株

東新은 五月高價를 上廻하야 今年 지금까지의 新高價로 猛進▲賭物과 新規買殺到로 場面에는 開戰되다래도 그것이 短期戰爭에 止할것가트면 이以上의 株式爆騰은 안될것이나 ▲伊『에』戰이 豫想과가티 良期에百하고 英, 佛에까지 불똥이 튀어 歐洲가 全局的으로 戰雲에 싸인다면▲歐洲大戰當時보다도 經濟力, 産業力이 充實化된 日本으로서는 歐洲가 險惡하면 할수록 歐洲經濟、產業의 衰微로 因한 日本의 好影響이 絶大할것인 만큼 株式市勢의 未曾有의爆

米

問題의 伊『에』의風雲은 漸漸急迫하야 歐洲戰亂의 再起할 形勢▲非卽之勢에 漁人의 功을 일운者는 日本이엇다 그래서 戰爭이 開始하기 前부터 財界의 好感을 受하야 株界가 日復日 高價로 昂騰하는光景▲株와 쌀은 그 性質이 다른것이지만는 株界의 昂騰은 財界의 好轉을 暗示함인즉 米界도 財界의 好感을 受할것은 事實▲쌀의 自作事情으로 보다 할지라도 昨年은 大凶作 本年은 平年作에 不及인 모양인즉 自發的으로도 强風이 襲來할것은 事實▲自他가 모다 强材를 釀出할뿐이니 前途大勢는 어떠한 程度의 高價를 示할지 末知▲昨今 常限은 渡米가 거의 整備되엿다는 關係로 由함인지 意外 伸悩하고 先限만이 제법 活氣를 帶한다▲當先의 鞘가 一時 四百五、六十丁이 擴大되엿스니 先限이올는지 當限이 떠러지든지어 느程度까지 縮鞘할것은 찰아리 當然한일

當地富限伸悩

客月과는反對

昨今 九仁 三等米는 三十一圓二十九錢으로 當限은 三十二圓二十九錢까지 昂騰하더니 昨今에入하야는 富米의時勢가 依然 緊張함에도 不拘하고 又는 先限의 新高値를 顯出하고 잇다 意外 伸悩의狀態를 呈하고잇다 要하면 當限의 取組가 前月上一萬七千石으로 그價中의 石數가 「以上의數字에 나 그러나 實方의 渡米荒策이 如意치못한 그 反面에는 受米를 忌避하는 空賣買方도 업지아니함으로 主力側外는 相殺하기로하고 最後受渡를 約萬石으로 假定한다면 賣方으로서도그다지 渡米의 受難이업을것갓다 遠貝未蒐集이 入千石은 無難되여잇고 從하야 一、二千石의渡米도 整備할可能性이 有함과如히 客月의 當限納會와 正反對의現象을 招來하지안홀가한다 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底堅

【大阪電話】今朝各地 天氣快晴이오 昨後場止 商强으로 買方利喰이急하야 引弛이엇스나 軟派로서는 前途彼岸後의 厄日을 압두고前場中에 一萬石目標의 馬越腰入買로 跳返하야 正米薄과 共히 堅調를 示하얏다

◆賣方 東京側、地場
◆買方 地場株式側、神戶側

各地正米

京城續伸

續伸하야 賣物皆無임과 期米强調로 氣配更히

仁川硬化

期米의 好轉와 物薄으로 氣配更히 十錢高唱이나마 新米中心으로 取引이 成立할뿐으로 依然閑散商狀을 示한 九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圓七十錢

釜山續騰

期米의 昂騰으로 市勢一氣로 四十錢續進인 後先今朝는 假騰反動的의 買氣慎重하야 人氣好況을 呈하얏스나 物薄으로 取引이 五二六以中이오 氣配十錢高인 角ヶ三等三十二圓 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七十錢

大邱保合

高價含인 期米를 보고도 目前機下를 앞두고서低價에는 買氣하는程度로 買氣 稍히 消極的인 角ヶ三等三十一圓 十錢 四等三十一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五十錢

群山堅調

産地 出盛으로 一向賣物이업고 新米도 强入氣인만큼 賣傍觀하야 日本內地에서사지안는 狀態이나마 氣配續하야 十錢高唱인 菱ヶ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四圓四十錢

木浦一息

在庫拂底로 一般賣方이 손을대지안코 一般擧下待望

南浦閑散

一部所持의 賣止態度로 場面閑散이나마 擧下와 等三十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新米出廻期接近으로 興奮氣味를 무한 丸ナ龜尾三等 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錢

株式 小林取引店 京城明治町一
期米 吉村取引店 仁川本町三
朝取 取引員 當業內連算 株 期 金仁梧商店 玉 米 式
德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代金引換販賣 文注方法 送料先方負擔

金融 十八日

◆海外經濟◆ (十七日)
◆朝鮮銀行券◆ (十七日)
◆日本銀行勢◆ (十七日)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米 十八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 十八日

◆京城綿系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鰊油冲價◆
◆鰊搾粕冲價◆
◆大阪綿系◆
◆大阪棉花◆
◆日本各地期米◆
◆大阪砂糖◆
◆橫濱生系◆
◆各地人絹◆
◆海外砂糖◆ 現物糖(ST) 賣買中値二〇、七〇錢 倫敦九十月 四志六牛 哇爪九十月 五盾七十二仙五 17日

株式 十八日

◆朝取短期◆
◆算定代引日步◆
◆大阪長期◆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累計

期米 十八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